HANURI TOUR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77.890.5913~4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PLH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E-mail: usaj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융자, 차종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Tel. 213-739-0403 Fax. 213-402-5136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25, 2012 Vol.361

미국 대선 위해 남가주 교계 기도

남가주교협, 교회들에 기도 요청 공문 발송해

변영익 회장

진유철 수석부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10월 21일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들에 공문을 발송, 11월 6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매 주일예배, 새벽예배, 금요기도회 및 교회 내 모든 모임에서 성도들이 합심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영익 회장과 진유철 수석부회장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은 동성애 문제 등 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들에 관한 교계의 관심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우선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와 낙태를 지지하는 상황이며 이 문제와 관련해 빌리 그래함 목사 등 복음주의권의 지지를 얻고 있는 롬니 후보는 몰몬교도다.

교협이 제시한 기도문은 아래와 같다. ▲대선 경쟁이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지고 주권을 행사할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력으로 지도자를 선출하여 갈등과 분열이 아닌 미국을 하나 되게 하는 대선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소통하는 정권이 세워져서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는 데 청지기로 쓰임 받는 대통령이 선출 되게 하옵소서.

▲희생과 섬김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정운영의 주체로 올바르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동성애 지지와 결혼에 대한 비성경적 정책이 취소되고 반기독교적인 정치가 사라지고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미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국과 지도자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계속되게 하시며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 받는 미국이 되게 하옵소서.

〈좌측부터〉 김성민, 박용덕, 이정현, 송영명, 박희민, 박성규, 민경엽, 한기형, 전두승 목사, 노형건 선교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이번 다민족기도대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미국의 회개와 부흥 위해 한인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미국의 대부흥을 간구하는 다민족 기도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로 성큼 다가왔다. 대회는 오는 2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Crenshaw Christian Center에서 열리며 한인 특별기도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다.

주최측은 동양인,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인종을 초월해 미국과 캘리포니아의 도덕적 부패를 회개하고 회복을 간구할 예정으로, 동성애법 반대와 북한 탈북자 송환 반대를 위해 기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회 주제는 'A Line in the Sand-모래 위의 선'이다. 이는 영적 전쟁을 선포, 최후의 보루가 돼 신성한 가치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다.

주최는 Rose Bowl Gathering이 하며, 한인 주최는 남가주교협, 남가주목사회, OC교협이, 한인 주관은 미주(LA)성시화운동본부가 한다. 참여단체로는 각 지역교회협의회, KCCC, JAMA, KCC 등이 있다.

주최측은 연인원 2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4일 정오 LA 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 한인 주최측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희민 목사는 "이번 기도대회에서는 코리안 스타일의 뜨거운 기도가 이어질 것"이라며 "영적으로 큰 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회 장소인 Crenshaw Christian Center는 79가와 벌몬 애비뉴에 위치해 있으며, 주소는 790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이다. 주차비는 무료다.

대회당일오전10시부터오후6시까지 열리는 중보기도모임에 참여하길 원하면 626-372-5151(전두승 목사)로 연락하면 된다. ▶2,3면 관련기사

토마스 맹 기자

WCC · WEA "북한인권 문제 총회로"

22일 서울 대치동 서울교회에서 'WCC-WEA 대화'를 주제로 열린 한국기독교학술원 주최 제42회 학술공개세미나에 양 기구를 대표해 참석한 이들은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 후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고 WCC와 WEA측은 지금까지 북한인권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각 기구들이 취해온 노력들을 언급했다.

WCC 프로그램위원장인 마틴 로브라 박사는 "한국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한국전쟁 이후 WCC의 오래된 이슈 중 하나였다"며 "지금까지 WCC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 굉장한 슬픔을 갖고 있고 통일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WCC는 남한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있고 이를 통해 남한교회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WEA 신학위원장인 토마스 쉴마허 박사 역시 "WEA는 유엔 인권위원회 멤버로서 WCC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꾸준히 다뤄왔다"며 "특히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지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양 기구는 북한인권 문제를 오는 한국총회에서 다룰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종윤 박사(한국기독교학술원장)는 "두 국제기구의 총회는 주최국인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한 북한 인권회복 문제 등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며 "양 기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세계에 호소하며 선교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8면 관련기사

김진영 기자

가깝고도 먼 日 복음화 방법은?

예수만이 구원의 길 통일교 재림주 교리는 이단

'복음의 황무지' 혹은 '선교사들의 무덤'으로 불리우는 땅, 일본. 한국에 비해 복음이 전파된 역사는 오래 됐지만, 아직도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에 훨씬 못 미친다.

내달 12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주제로 일본선교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와 미주일본인선교훈련원(좌영진 목사)이 공동 주관하고, 미주복음방송을 비롯해 남가주사랑의교회 일본선교부, 갈보리선교교회, 솔라그라티아미니스트리 등이 협력 후원한다. 장소는 주님의영광교회 호프센터(1801 S. Grand Ave., LA)다.

지난 8월 일본어부를 신설해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한 주님의영광교회는 2부 예배시 일본어 동시통역이 이뤄지며, 매주 정기적인 일본어 성경공부와 선교를 위한 모임을 갖고 있다. 통역은 좌영진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본격적인 일본 선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미나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지며, 주강사로 신승훈 목사, 이이다 고넬료 목사, 다나베 목사 등이 나선다. 이밖에 문원근 장로와 이네노 목사, 심상은 목사, 나순용 장로, 좌영진 목사 등이 나선다.

문의: 213-375-5110

정한나 기자

최근 방한한 장재형 목사는 교계 언론을 초청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한 재림주 의혹을 불식시켰다. 그는 신앙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음을 명백히 고백한다"고 밝혔다. 또 "통일교의 재림주 교리는 이단임을 천명하며 저는 현재 통일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명혁 목사(한복협 회장),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등의 교계 지도자들이 동석했다.

장 목사는 자신을 재림주라 음해한 D신문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서류와 한기총 이대위가 "이단성이 전혀 없다"한 공문을 자료로 제시했다.

▶6면 관련기사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it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DAEWOO

TAX 문제 전문
자산동결 및 은행구좌 차압해결, 밀린세금 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변호사, CPAs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udit, Levies/Liens, Sales Tax, Payroll Tax
KC Choi, E.A.
TAX HELP TEAM (213) 248-0221
3250 Wilshire Blvd. Ste. 900, Los Angeles, CA 90010

커피와 선교 세미나
커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커피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커피를 통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커피는 마지막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도구입니다.
커피 한잔으로 만남의 축복을 얻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일생 최고의 커피를 대접해 드리며, 고급 커피빈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성도와 선교에 관심있는 성도님 누구나 참석 할 수 있습니다
일시: 11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6시 30분)
주최 및 장소 : KCCC 대학생선교회 2층 강당 (1636 W. 8th St Los Angeles. CA)
예약전화: 213-880-9082 coffeekccc@gmail.com
*전화예약 필수! 선착순 50명! 참가비 $20
강사: 노 스데반 선교사
KCCC 간사
스페셜티 커피 아카데미 대표.
Coffee MBA America 대표.
인천문예대, 한림성심대 바리스타학과 강의
cru KCCC
바리스타 자격증 아카데미
Barista Certificate Course
11/7, 11/14, 11/21 3회 특별강의
1.커피학개론. 핸드드립
2.로스팅. 세계의 커피
3.에스프레소. 라테.모카
최대교육기관 CoffeeMBA 공식 발행 바리스타 자격증.

특별 기고 |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

10월 27일 다민족기도회 한인교회 앞장서자

호주의 타즈마니아 주 해안에서 200여 마리의 돌고래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돌고래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급 돌고래가 일시적인 방향감각 상실로 인해 해안으로 올라갔고 그 뒤를 따라 200여 마리의 돌고래가 따라 올라가면서 뜨거운 모래사장에서 그들은 죽어 갔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방향감각을 상실하면 국가는 대환난이 오게 됩니다.

지금 미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부국 강대국의 면모를 자랑했고 세계 원조 1위국, 세계 선교 1위국의 위용을 자랑했던 미국이 이제 170조 달러의 부채를 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5만 달러의 빚을 머리 위에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땅은 청소년들의 마약 천국이 되어가고, 총기사고는 이제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방향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TV 방송설교가인 잭크반 임프 박사는 오늘날 미국에 관영하는 문화가 가나안 땅에 창궐했던 음란한 바알문화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 팽배한 바알문화와 싸우는 거룩한 성도, 가슴에 의분을 품고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매년 술 마시는데 31조 달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들이 130만 명이 넘습니다. 담배로 매년 10조 달러, 도박으로 매년 60조 달러를 소비하고, 매음으로 인해 900만 명 이상이 성병에 걸려 있습니다. 1994년 노스릿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대형 포르노 회사를 강타했는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2010년 10월 28일 마침내 대통령의 서명으로 동성애자들의 군복무가 정식으로 허용되었습니다. 2011년 7월 14일 동성애를 미화하여 공립학교 교과서에 싣는 SB48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2012년 9월 29일 18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이미 동성애자가 된 자들을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일체 저지하는 SB1172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한 가정은 깨어지고,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성했던 로마제국이 멸망했던 것은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내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로마군대의 절반 이상이 성병에 감염되어 스스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노아 홍수 심판은 사람이 육체가 되어 음란과 패역이 가득할 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은 동성애가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하신 심판입니다. 로마의 휴양도시 폼페이가 베스비우스 화산으로 한순간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도 성적 타락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외칠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역대하 7:14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과 부흥입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처럼 상한 심령을 안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고 이 미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17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병든 땅을 고치고 새롭게 회복시켜 세계를 향해 원조의 손길을 펴는 부국 강대국, 세계 선교 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조국 대

박성규 목사

한민국이 6.25 전쟁으로 무너져 갈 때 미국의 청년들 5만 명이 달려와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인들의 눈물의 기도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의 이민자가 아니라 미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조국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주인입니다. 미국이 망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 우리를 미국에 보내어 주셨고 1350개의 새벽을 깨우는 한인교회, 순교신앙의 후예인 한인교회를 캘리포니아에 세워놓으셨습니다. 한인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땅의 부흥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10월 27일! Crenshaw Christian Center에서 이 미국의 회복을 위한 다민족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작년 로즈볼에서 열린 11.11.11 대회에 3만 명이 모여 부르짖던 그 뜨거운 기도의 함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10월 27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가장 귀한 골든타임이 우리 한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손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엘리야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사 구원하시고 치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 상이 클 것"

사랑의띠선교교회, 정남준 목사 초청 집회 개최

정남준 목사가 선교집회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찢어진 달러, 짓밟힌 달러는 모두 같은 가치를 지녔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사랑의띠선교교회(한국 엘림장애인선교회 LA지부)가 18일 오후 7시 30분에 선교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엘림선교회 조직위원장 정남준 목사(인천 향촌제일교회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총회 증경총회장)가 초청돼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예전에 자살하려고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키려고 죽지 않았던 것 같다"며 "23년 동안 두통이 심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심산으로, 같은 병을 가진 한 집사님과 8개월 동안 새벽기도를 했더니 완전히 낫는 기적을 체험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나"라면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돌아보지 않았느냐'면서 칭찬하실 것이다. 엘림장애인선교회를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5일(목)에는 엘림선교회 사무총장 고창수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주소 : 1300 W. Olympic Blvd. #200 Los Angeles, CA 90015
문의: 213-736-6625

토마스 맹 기자

행사 소식 및 단신

남가주 영적 대각성 집회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남가주교협 주최로 영적 대각성 집회가 열린다. 강사는 윤호균 목사(한국 화광교회, 성산수양관 원장, 한기총 부흥협의회 회장·영적각성위원장 역임)다.

▲24일 저녁 7시 30분에는 ANC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818-834-7000)에서 ▲25일과 26일 양일간 새벽 5시 30분에는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323-913-4499)에서 ▲26일 저녁 7시 30분에는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446-6200)에서 ▲27일 저녁 7시 30분에는 얼바인침례교회(한종수 목사,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949-857-9425)에서 ▲28일 오전 11시에는 벧엘장로교회(변영익 목사, 857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36, 323-937-1732)에서 각각 집회가 있다.

남가주빛내리교회 부흥성회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는 10월 29일(월)부터 11월 1일(목)까지 천안 임마누엘교회 이규철 목사를 초청해 2012년 추계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집회는 월-목 저녁 7시 45분, 화-수 새벽 5시 30분이다. 문의: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714-401-9874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로 유명한 한동규 박사님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떠오르는 기독교대안학교 코너스톤 아카데미

원스탑 교육 시스템, 교역자 자녀 위한 학비 감면 혜택

풀러튼의 중심 지역에 설립된 코너스톤 아카데미가 건강한 기독교 교육을 목표로 힘찬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자고로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선조들은 "십년의 계책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 만한 것이 없고, 백년을 내다 본 계책으로는 사람을 키우는 일 만한 것이 없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하지만 최근 미 전역에서 기독교 가치관에 반하는 법안들이 봇물을 이뤄 상정되는 가운데, 특히 캘리포니아 내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갈수록 문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으로 기독교 교육만이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제 교회가 교육의 중심에 서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물을 키워내고,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풀러튼 지역에 새롭게 개교한 '코너스톤 아카데미'(한재혁 이사장)가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을 표방하고 나서서 화제다. 개교한 지 3주만에,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등록 학생이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위치는 현 이스트사이드 크리스천교회(2505 Yorba Lind Bl. Fullerton, CA92831)가 쓰고 있는 건물로,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가 10월 말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총 30여개의 클래스룸이 마련될 정도로 넓은, 2만 스퀘어 핏 공간에 수용 인원도 560명 가량 된다.

영아부(6주-12개월, 12-24개월)를 비롯해 프리스쿨, 킨더가든, 애프터스쿨 과정까지 마련돼 있어, 한 곳에서 원스탑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리스쿨과 킨더가든의 경우 풀타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프타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케어해 주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애프터스쿨의 경우 소그룹 체제 하에 각 학교 교재 중심의 지도로 이뤄지는 아카데믹 레슨 과정과 스페셜 클래스 즉, 양궁·유도·체스·발레 등 각 분야 최고의 지도자들이 직접 가르치는 과외 활동으로 나눠진다.

양궁은 84년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서향순 씨가 지도를 맡으며, 유도는 8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박경호 씨가, 체스는 US챔피언 Joe Hanley 씨가, 발레는 국립발레단 출신 레나 박 씨가 각각 맡는다. 이밖에도 힙합, 미술,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성악, 골프, 태권도 등 다양한 과정이 마련돼 있다.

학교 측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을 이끌 지도자로 키우는 기본"이라면서 "공부를 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열정을 갖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가며 비전을 갖고 자라날 때 목적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는 전원 유아교육 전공자들로 최고의 실력은 물론 대부분 신앙경력이 30-40년 된 독실한 크리스천들이라 신뢰할 만하다.

무엇보다 풀러튼 지역의 경우 학교 차원에서 무료로 픽업을 전담하기에 더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한재혁 이사장은 "교사들을 통한 픽업이 아닌, 전문 업체에 정식으로 의뢰해 픽업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얼바인침례교회(담임 한종수 목사)의 교인인 한 이사장은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먹고 놀다 갈 수 있도록 모든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코너스톤 아카데미는 현재 교역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교회 및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 목사 자녀의 경우 학비의 절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칼 웍스(Calworks) 등을 비롯한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이는 부모 양쪽 다 일을 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할 경우에 도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714-870-9900
www.cornerstonefullerton.com

정한나 기자

10월 27일 "다시 한번" 성령님과 대부흥 간구하자

27일 열리는 다민족연합기도대회의 한인 코디네이터 전두승 목사(시티하베스트교회)는 "이번 대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자, 미국의 대부흥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형기도대회는 작은 기도모임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들었다.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회자들, 중보기도자들이 주축이 돼 대회가 준비됐다. 중보기도모임인 캘리포니아리스닝과 시티와치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 프레이캘리포니아, 회원이 3000명이 되는 리프트캘리포니아 중보기도 그룹이 모이고 있다. 지금 미국은 도덕적으로 큰 영적 위기를 맞고 있다. 최후의 배수진을 쳐서 물러서지 말자는 의미로 올해 대회 주제가 '모래 위의 선'이다. 선을 긋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자는 의미다.

지난해 로즈볼 11.11.11 이후에 53개 나라와 각국 14개 TV 방송국이 네트워됐다. 그리고 남미 8천여 교회와 2억의 무슬림들에게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랍방송과도 네트워됐다.

대회 관계자인 안드라데 목사가 최근 아랍에도 다녀왔다. 그는 요르단 왕자의 허락을 받아 12월 12일 요르단의 기독교인이 모이는 기도회를 열 예정이다.

-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이유는?

전두승 목사

미국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살리는 기도운동에 한인을 사용하실 것이다. 기도하면 결국 성령이 임하고, 그런 성령폭발의 선두주자로 한국 민족을 세우신 줄 믿는다. 그 다음은 선교다.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적 대추수를 위해서 기도운동이 확산돼야 한다.

-기도회를 앞두고 현재 분위기는?

대회 준비기간이 짧은 느낌이 있지만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계속적인 기도모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티노와 흑인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인교회는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다.

-덧붙일 말씀은?

이 모임은 그냥 행사가 아니라 성령을 간구하는 모임이다. 한인교회가 이를 감당해야 할 영적, 경제적 위치에 와 있다고 확신한다.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

토마스 맹 기자

행사 소식 및 단신

연세대 동문들 추수감사예배

연세대 남가주총동문회(서문준 회장), 남가주연세동문목회자회(정요한 회장)이 함께 추수감사예배 및 찬양축제를 연다. 11월 18일 오후 6시 나성동산교회(2525 James M. Wood Bl. Los Angeles, CA90006)에서다. 연세 콰이어와 ANC온누리교회 어린이합창단이 특별출연한다.

문의: 213-422-9191

소망소사이어티 연장자 돕기 행사

소망소사이어티는 11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연말 연장자를 돕기 위한 Sharing Hope Garage Sale(소망나눔가게)를 연다. 소망 측은 옷, 신발, 가전제품, 가방 등을 도네이션 받아 이날 거라지 세일하고 그 수익금을 연장자를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문의: 562-977-4580

커피와 선교, KCCC 세미나

한국대학생선교회(KCCC)가커피와 선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KCCC 측은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6시 30분에 "커피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커피와 선교를 연관지어 열리는 이같은 세미나는 LA 사상 최초다. KCCC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커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그리고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강사로는 커피 전문가 노 스데반 선교사가 나선다. 노 선교사는 그간 바리스타 아카데미를 통해 커피전문가를 양성해 왔으며, 선교지에서의 커피하우스를 통한 교회 개척에 힘써 왔다. 다수의 대학에서 바리스타학을 강의해 온 경력도 지니고 있다. 노 선교사는 "커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도구"라면서 "커피 한 잔으로 만남의 축복을 얻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는 50명으로 제한, 참가비는 20불. 참석자 전원에게 커피를 선물로 준다. 수익금은 선교헌금으로 쓰인다. 문의: 213-880-9082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예배당 전경

담임목사와 시무 장로들이 함께 회의하고 있는 모습

창립을 기념해 교역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여선교회 합창제에서 성가대가 노래하고 있는 모습

앞만 보고 달린 30년 … 이제 내적 성숙에 만전 기할 터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윤선식 목사를 만나다

“

3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목회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쉼없이 달려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풍파와 시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허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

누구든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력을 갈고 닦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 있다.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하물며 10년에 10년을 거듭해 또 10년을 그 일에 천착했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베테랑일 터. 물론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매순간 최선을 다했다는 전제 하에서 성립된다. 그런데 목회자의 세계는 어떠한가. 마태복음 28장 말미에 나오는 주님의 대위임령에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한 쪽 어깨에 짊어지고 또 한 쪽 어깨엔 맡겨주신 영혼을 먹이고 잘 돌보는 일, 즉 ‘목회’의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겐 ‘베테랑’이라는 수식어가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처럼, 횟수를 거듭할수록 전능자 앞에 선 인간의 나약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기 때문일까.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윤선식 목사는 개인적으로 목회 인생을 40여 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19일 그의 목양실에서 만나 지나온 목회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목회의 정의에 대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 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기에 앞서 목회자 자신이 사는 게 중요하다”면서 “자기 영혼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잘 안돼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목회자의 자기 관리를 강조했다. 이에 더해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감명을 받아 겸손한 자세로 목회할 때 목회가 잘 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가 많이 남는다”면서 “사람이란 원래 후회를 하기 마련인데, 매 순간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겸손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윤 목사는 한국에서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 산골의 어느 개척교회에서 1년, 원주제일감리교회 부목사로 2년, 군목으로 3년 재임하다 77년 제대하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처음엔 신학 공부를 계속할 요량으로 미국 땅을 밟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목회를 하게 됐다고. 간호사로 일했던 사모의 내조가 그의 미국 정착에 한몫 톡톡히 했다.

윤 목사의 집안은 대대로 목회자 집안이다. 그의 부친, 윤지용 목사는 고향인 충청남도 당진 신평면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고, 그곳에서 40여년 목회하다 은퇴했다. 현재는 아들이 시무하고 있는 금란교회 원로목사로 있다. 부전자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윤 목사의 두 딸 중 막내인 윤세라 씨는 풀러신학교를 졸업한 뒤 캠퍼스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금껏 외길 목회 인생을 걸어오면서 왜 고비가 없었겠는가. 하지만 그때 그때마다 느낀 건 ‘자기 관리의 중요성’이다. 즉, 성품을 잘 다듬고, 인내로 참아내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 너무 앞서가지 않는 것도 목회자가 갖춰야 할 센스다. 강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목회자 혼자 달려간다고 교인들이 다 따라오는 건 아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춰 이끄는 센스가 필요하다.

40여년 지났는데 이제 좀 목회가 쉽냐는 질문에 그는 “지금도 어렵지만, 초창기엔 더 어려웠던 거 같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목사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소셜워크였어요.”

새로 이민 온 교인들을 위해, 공항에 픽업 나가는 일에서부터 자녀들을 위한 학교 소개, 아파트 마련, 심지어 병문안 가는 일까지 담임목사인 그가 하나부터 열까지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물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영적 케어도 필요했지만, 당시로선 이런 육적 케어랄까, 이런 ‘뒷바라지’ 역시 교회가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고한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소셜워크는 자연 교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물론 옛날과 많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게 필요하긴 해요. 당시엔 눈에 보이는 면에만 관심을 뒀는데, 이젠 더욱 더 영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여야죠.”

창립 30주년 기념 소감으로 윤 목사는 “돌이켜 보면,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교회도 지난날의 역사 가운데 순풍의 돛단배처럼 항해해 온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세월도 있었고, 영욕의 부침이 있었다”고 말했다.

“초창기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비해 이민사회 특성상 성도의 이동이 잦아 실망하기도 했죠. 내가 이 일 하려고 미국에 왔나 하는 후회도 있었구요.”

모르긴 몰라도 이민교회가 겪는 특유의 내홍을 겪으면서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을 터다. “하지만 이런 질풍노도의 세월을 거쳐 어느새 4반세기를 넘어 30년이 됐네요. 나이 서른은 사람으로 치자면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교회적으로도 연륜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한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면서 마음 설레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금란교회는 시작은 1982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의 장로, 집사 및 성도 10명이 창립 초대 목사인 김건도 목사가 살았던 론데일(Lawndale) 지역의 작은 아파트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됐다. 초창기엔 예배로 쓸 처소를 구하지 못해 무려 6주간을 알론드라팍(Alondra Park)에서 야외예배로 드리기도 했고, 이리저리 예배당을 빌리고 옮겨 가기를 반복했다.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윤선식 목사. 그는 올해로 40여년째 목회를 계속하고 있다.

김건도 목사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민자들의 삶은 ‘광야 생활’이기에 교회당 건물을 교인들이 땀 흘려 건축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최근 회고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했으므로 우리도 빌려서 예배드릴 장소만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자는 신념으로 목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창립 4년만에 당시의 알론드라팍 미국연합감리교회의 허락을 받아 친교실을 빌려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러던 어느날 미국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한국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부흥이 잘 되느냐”고 물으면서 “현재 미국교회는 날로 쇠퇴해 지금은 대부분 노인들만 출석하는 형편이라 교회당을 관리하기조차 힘이 든다. 만약 한국교회가 이 교회 건물을 원한다면 넘겨주고 우리 백인 회중들은 각자가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 흩어질 것을 의논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들은 김 목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혹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되물어 보기도 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건물을 인수하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감리사나 지방재산관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수일 후 서명을 봉한 편지를 가져와 넘겨 주는 것이었다.

김 목사는 “당시 그 편지를 받아들고 교회로 돌아와 한국교회가 빌려 쓰던 작은 사무실에 엎드려 한참을 울면서 감사기도를 드렸던 그 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회고했다.

이렇게 1대 김건도 목사가 시무했던 1982~1987년 개척기를 지나, 1997년 10월에 19년간 로즈펠리스연합감리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윤선식 목사가 2대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정착과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다. 현재 사역자는 담임목사를 포함해 총 10명. 1년 예산이 1백만불 가량 된다. 20여 곳의 선교지를 지원하고 있고, 부속 시설로 금란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윤 목사 부임 후 특이할 만한 사항은 교육에 특별한 정성을 쏟았다는 점이다. 2001년부터 시작해 EM 2세들을 위한 교육관을 건립한 것이 바로 그것. 채플을 비롯한 클래스룸이 이때 마련됐다.

나성금란교회의 재적 교인수는 아동부, 학생부, EM, 성인 한어부를 포함해 총 9백여명이다. 실제로는 매주 5백여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성금란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가디나 지역엔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거의 없다. 실제로 교인들 대부분이 LA나 세리토스, 토렌스 등 여러 지역에서 차를 타고 예배 드리러 온다.

이제 금란교회는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돌아보며 향후 40년의 비전을 놓고 달려간다. 우선 지교회를 10개 개척하고, 성도수를 지금의 2배 이상 늘리고, 교구도 지금의 8교구에서 20교구로 늘린다는 목표다. 사역자도 지금의 딱 2배인 20명. 가장 눈에 띄는 비전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다.

이밖에도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을 비롯해 실버아카데미, 실버타운, 양로병원, 수양관 겸 기도원을 차례차례로 건립해 나갈 방침이다. 금란교회 교인들은 “꿈이 준비되어야 꿈의 실현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다”면서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한편, 금란교회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섬김의 차원에서 내달 3일 인근 히스패닉, 흑인들을 초청해 풍성한 잔치를 벌인다. 이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다.

이번 행사에서는 찬양 집회와 바비큐 파티를 비롯해 참석자들에게 선물도 증정한다. 윤 목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함은 물론 평소 파킹랏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은혜를 선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정한나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감기약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뚝!
증상별 처방/ 천연 한약재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여행자 보험 /건강보험/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먹고 바르기도 하는 알로에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체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옛적 길 곧 선한 길

예레미야 6:9-2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믿어 살지 못하는 것은 이성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개함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역사를 창조 이후 지금까지 엮어 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백성은 반드시 성공을 결실할 수 있었지만 불순종했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후회로 점철해 온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큰 환란의 형벌을 예언해야 하는 상황에서 왜 그들이 이처럼 비참한 불행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다 보면 포도 알갱이와 이삭이 땅에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떨어진 것들은 포도 수확을 다 마친 후 엎드려 광주리에 주워 모아 말갛게 거두어 들인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불행의 예고인 것입니다.

바벨론 대군이 먼 곳에서부터 쳐들어 올 때 마치 농부가 포도를 거두는 것처럼 이삭을 먼저 열매로 거두고 땅에 떨어진 것은 광주리에 따로 주워 모으는 것처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침략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들의 침략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죽어서 멸망했다 할지라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떨어진 포도 이삭을 광주리에 걷어가듯 두 번째 침략을 인하여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9절의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벨론을 붙들어 쓰시기 시작하셨다는 시대적 변화의 모습을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란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탄식의 이유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서로 교제를 통하여 인연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땐 관계는 부득이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신뢰하시려고 애쓰셨으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욕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소멸되고 유기된 백성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한 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하셨는데 하나님이 손을 펴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을 환영하고 알뜰히 품어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팔을 벌려 손을 펴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매를 때리시기 위해 손을 펴시는 경우입니다. 본문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라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갖게 되는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이 미워 때리는 것이 아닌 그 장래를 걱정하고 사랑해서 때리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 된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챙겨 주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타인에게 인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 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탐남'이라는 말은 좋든 나쁘던 무조건 휩쓸어 끌어들이는 것을 말하며 그저 거두어 챙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아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내세지향적인 자세가 아니고 이기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역할 뿐 아니라 살리기 위해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마저도 욕을 듣는 것처럼 싫어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거두고 챙기는 일에 이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듣고 복음화 되어지길 힘쓰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을 보장받지만 복음을 수없이 전해 주었지만 복음화로 기대 걸거나 그대로 살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도 듣지 않으면 심판을 선포하시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장들과 잘못된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고 말함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3-4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했는데 이같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본문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63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고 이사야 1:19-20에서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선지자들은 "걱정말라, 귀담아 들을 일이 아니다. 이같은 태평성대에 저주스러운 말로 악담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할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와 보는 시각과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은 그들의 죄악을 감시하며 그들의 심령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몸부림쳤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힘썼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도 들려주시지 않고, 서둘러 지옥으로 몰아넣기 위한 달콤한 유혹의 말만 들려오는 입장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일 것입니다.

16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중에 믿음의 본을 남긴 자들이 어떤 생활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생계가 보장받았는지 그 길을 살펴보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길을 본받아 그리로 행함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을 벗어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8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조상들이 지켜 살아온 믿음의 본을 남긴 옛적,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을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가지로 제약을 받는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대 걸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을 바라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목적해야 합니다. 예전엔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로 인도하심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39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며 이 말씀을 상고하며 사는 인생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합니다.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십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찜이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심은 6,000리나 되는 먼 곳인 시바에서 유향을 사오고 그보다 더 먼 인도(원방)에서 향품을 사 가지고 제단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활하는 목적의 중심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 문제라서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마다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습관처럼 드리는 헌금이라면 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라면 목숨이라도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기꺼이 바치고 싶어 할 것이며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성을 모아 섬기자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살지 못해서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어지는 확실한 믿음과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는 목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을 나타낸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어렵게 구한 물품들을 하나님 제단에 바쳤다 하더라도 심령으로 진리 안에서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평소의 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행동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때 여러분들의 길은 평탄하고 형통하며, 안전한 구원의 보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기독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장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2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 로 몬 대 학 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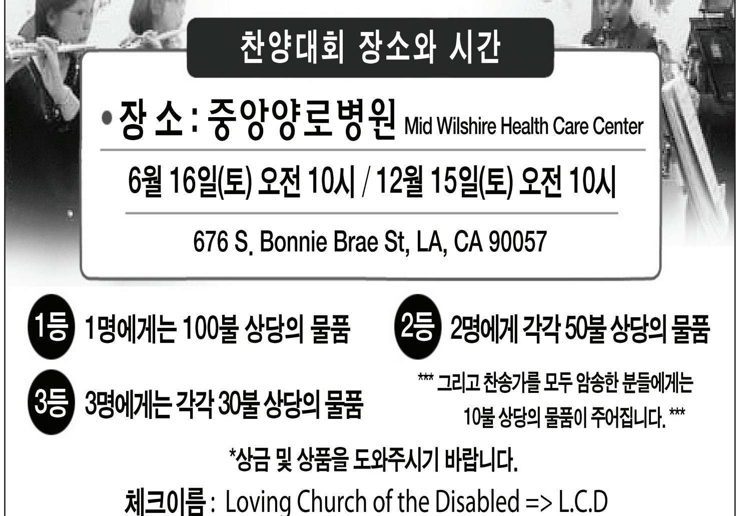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환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 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土) 오전 10시 / 12월 15일(土)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 찬 |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 충효예지부, 벧엘장로교회, 엘에이사랑의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일보,한솔종합보험, 크리스챤헤렐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한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변호사, 재미남가주황해도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SBOE,EDD,FTB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운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토요일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담임목사 청빙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는 교회설립 23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선교하는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M. Div)
   이민목회 5년이상 경험이 있는자.
2. 미국 거주 취업이 가능한자.
3. 이중언어 (한국어, 영어)로 설교가 가능한자(우선)

제출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2. 신앙고백, 목회와 선교에 대한 소신서
3. 학력증명서사본
4. 목사 안수증서 사본
5. 추천서 2통(추천인이 직접보냄)
6. 설교 2편 (CD 나 음성파일 또는 웹사이트 링크)

보낼곳
이메일: sangwwoo@sbcglobal.net
담당자: 당회서기 우상욱 장로
서류접수 마감일: 2012년 10월 30일

참고사항
1. 모든 서류와 문의는 이메일로 만 받습니다.
   모든 제출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보내 주십시요.
2.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서류심사후 청빙후보가 되신 목사님께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교회전반에 관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후에 영상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교회 웹사이트: www.arkmissionchurch.org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 임시 당회장 임동하 목사
Ark Mission Church, P.C.A

장재형 목사, 복음주의 원로들과 기자간담회 가져

신앙적 입장 재천명하고 교계 일각의 재림주 의혹 일축

장재형 목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신앙고백문을 낭독하고 있다. (우측부터 순서대로) 김명혁 목사, 김영한 박사, 장재형 목사, 박봉규 목사

세계복음연맹(WEA) 북미 이사인 장재형 목사(예장 합동복음 증경총회장)가 20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을 향한 이단 의혹이 날조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신앙적 입장을 재천명했다.

최근 방한한 장재형 목사는 이종윤 목사(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김명혁 목사(강변교회 원로, 한복협 회장), 김상복 목사(WEA 국제이사회 의장) 등을 예방하고 2014년 WEA 총회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일각에서 제기한 재림주 의혹에 대해, 언론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소명함으로써 불식시켰으면 좋겠다"는 원로들의 조언에 따라 이같은 자리를 갖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소 장 목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해 온 곳들을 포함해 총 20여 교계 언론 기자들이 참여했다.

장 목사는 이날 신앙고백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했다. 특히 자신을 향해 이단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 "모두 다 근거 없는 이단 날조의 범죄행위"라며 "한기총이 지금처럼 분열되기 이전에, 소위 이단감별사 4인방이 주도한 한기총 이대위 조사 결과 이미 일소된 것이다. 더 이상 연합기구에서 거론해선 안 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장재형 목사가 "D신문이 본인에 대해 재림주라는 용어를 사용해 음해한 것에 대해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하자, 자리에 있던 D신문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장 목사는, 형사고소를 당해 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D신문 사건 판결문 중 범죄사실 부분에, 재림주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명백히 명예훼손임이 기록돼 있음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했다.

장 목사는 "이미 변호인단을 구성한 상황"이라며 "어느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분명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앞으로 재림주라는 용어를 사용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목사는 또 "본인은 한기총이나 어떤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규정된 바가 없고, 오히려 한기총에서 7년여에 걸쳐 4차례 조사에서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는데, 본인과 관련해 '한기총이 이단을 해지했다'고 하는 것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 대처를 시사했다.

장 목사는 신앙고백문에서는 재림주 의혹과 관련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없으며 더군다나 자신을 재림주라고 한 적도 가르친 적도 없다"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에 이르는 길, 자유에 이르는 길은 없음을 명백히 고백하는 바"라고 밝혔다.

통일교 연관 의혹에 대해서도 "통일교의 재림주 교리는 이단임을 천명한다"며 "또한 저는 현재 통일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번에 걸쳐 조사하여 판결하고, 아무 혐의가 없다고 한 공문서들(2004년 7월 6일, 2005년 9월 6일)을 예장 합동복음 교단으로 송부했던 것이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앙고백문을 이미 2007년 5월 23일 일본 크리스천투데이 지면, 2008년 6월 10일 뉴스앤조이 지면, 2008년 6월 12일 미국 한인교계 지도자들(남가주교회협의회 신승훈 당시 회장, 남가주한인목사회 김재연 당시 회장)과의 만남, 2008년 6월 21일 한국 크리스천투데이 지면을 통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장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치 신앙적 입장을 한 번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거나, 제대로 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날조한 세력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명혁 목사를 비롯해 김영한 박사(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초대 원장, 기독교학술원 원장)와 박봉규 목사(기독교학술원 사무총장, 한장총 전 사무총장)도 배석했다.

김명혁 목사는 이 기자간담회에 대해 "그동안의 이단 의혹이 불식될 만한 신앙고백을 했다고 본다"며 "본인이 분명히 고백했으니 그것을 믿어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영한 박사는 "우리는 누군가를 두둔하려거나 비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자고 온 것"이라며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억지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만들려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고백을 한다면 우선 믿어주고 앞으로의 열매를 지켜보자"고 했다.

박봉규 목사도 "이렇게 많은 교계 언론들 앞에서 분명하게 자기 고백을 했으니, 이제 충분하다"며 "교계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당초 개인의 신앙고백 뿐 아니라 2014년 WEA 총회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명혁 목사는 "2014년 한국에서 열리는 WEA 총회는 한기총만이 아니라, 한국의 복음주의 교단과 단체들을 상대로 하는 새 틀을 짜서 세계적 대회로 치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류재광 기자

[장재형 목사의 신앙고백문 전문]

저는 제가 속한 교단과 단체의 신앙고백을 따라 다음과 같이 저의 신앙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1. 저는 신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다.

2. 저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로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3.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한 이래로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4.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에게서 나심과 죄 없으심과 기적을 행하셨음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5. 저는 타락하여 죄인이 된 인간이 중생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6. 저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죄 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되어 인간이 가진 죄가 근본적으로 도말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7. 저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케 하시며,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8. 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두 끝날에 부활하며,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에 처하며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9.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은 오직 거듭난 자들로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임을 믿습니다.

10.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믿습니다.

11. 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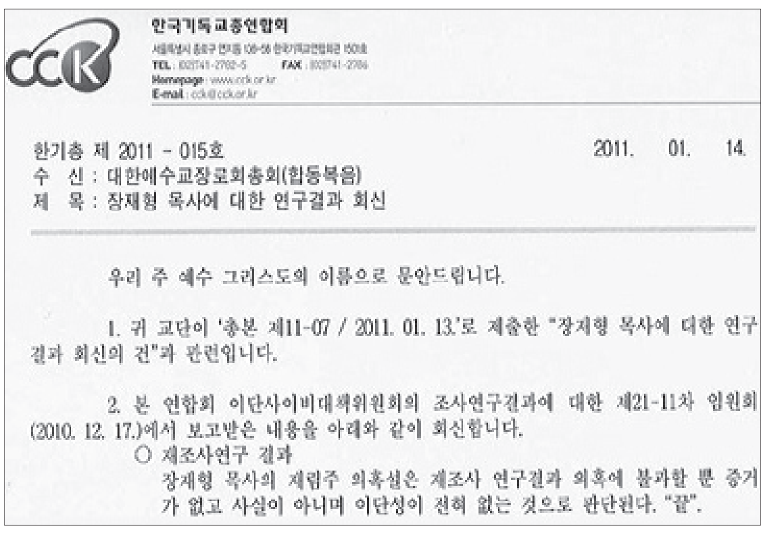
12. 저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으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추가로, 제가 지난 2007년 5월 23일 일본 크리스천투데이 지면, 2008년 6월 10일 뉴스앤조이 지면, 2008년 6월 12일 미국 한인교계 지도자들(남가주교회협의회 신승훈 당시 회장, 남가주한인목사회 김재연 당시 회장)과의 만남, 2008년 6월 21일 한국 크리스천투데이 지면을 통해 이미 밝힌 바를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고백하고 확인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제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없으며 더군다나 자신을 재림주라고 한 적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에 이르는 길, 자유에 이르는 길은 없음을 명백히 고백하는 바입니다.

저는 통일교의 재림주 교리는 이단임을 천명합니다. 또한 저는 현재 통일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번에 걸쳐 조사하여 판결하고, 아무 혐의가 없다고 한 공문서들(2004년 7월 6일, 2005년 9월 6일)을 예장 합동복음 교단으로 송부했던 것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20일 장재형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제 2011 - 015호 2011. 01. 14.
수 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복음)
제 목 : 장재형 목사에 대한 연구결과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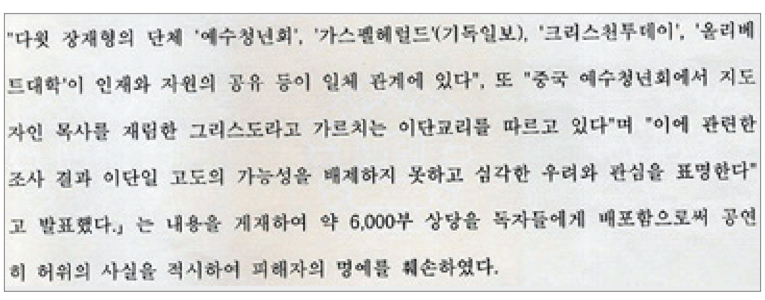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 귀 교단이 '총본 제11-07 / 2011. 01. 13.'로 제출한 "장재형 목사에 대한 연구결과 회신의 건"과 관련입니다.

2. 본 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조사연구결과에 대한 제21-11차 임원회(2010. 12. 17.)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재조사연구 결과
장재형 목사의 재림주 의혹설은 재조사 연구결과 의혹에 불과할 뿐 증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며 이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

한기총 이대위 조사 결과에 대한 공문



"다윗 장재형의 단체 '예수청년회', '가스펠헤럴드'(기독일보), '크리스천투데이', '올리벳대학'이 인재와 자원의 공유 등이 일체 관계에 있다", 또 "중국 예수청년회에서 지도자인 목사를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이단교리를 따르고 있다"며 "이에 관련한 조사 결과 이단일 고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약 6,000부 상당을 독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D신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문에서 '범죄사실' 중 일부

클래어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과정

Doctor of Ministry (D.Min.) in
Practical Theology of Healing, Reconciliation Transformation in Korean Contexts

클래어몬트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최초로 목회학박사과정을 만들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신학대학교입니다. 또한 클래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은 미국 교육부의 대학학력인증기관인 "서부대학 기관협의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s)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교의 공식학력을 인증하는 기구인 "북미신학대학교협의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여러 가지심사와 검증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학력인증을 받은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신학대학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목회학박사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이렇게 대표적인 두 곳의 학력인증 교육기관에서 학력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클래어몬트신학대학교의 실천신학목회학 박사 과정은 그 학사과정,교수진,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어몬트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통합적 상황분석을 강조함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이해, 또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이 학위 과정은 학생들에게 갈등과 치유에 대한 비평적이며 조직적인 이해, 이론과 실천의 접촉점에 대한 비평적 고찰, 임상과 신학의 통합된 기술과 능력을 얻도록 도울 것 입니다.

[입학원서 마감일]

- 2013년 1월 입학:2012년 11월 10일 경
- 2013년 6월 입학:2013년 3월 10일 경

참고
입학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강날짜에 대한 최종결정은 각각 2012년 11월말과 2013년 3월말에 내려집니다.

[입학요건]

- M.Div.학위 혹은 동등학위 소지자
  (동등학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학교 웹사이트 참고)
  http://media.cst.edu/uploads/genericfile/korean-d-min-application-instruction.pdf
- 각 학위성적(GPA) 3.25이상 선호
- M.Div. 학위나 동등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사역경험
- 본 과정은 한인교수가 강의하거나 미국인교수가 한인교수와 함께 강의하기 때문에 토플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타]

- 수업료:학점당 미화 680불(3년 동안 총32학점 수강)
-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모든 여행비용은 학생들이 각자 부담
- 한국어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는 학과과정을 마친 후 교단에서 수여하는 "목회 최고 지도자 과정" 수료증서를 받습니다.

- 아래 웹싸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online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http://www.cst.edu/admission/apply-now/

For More Information

www.cst.edu

이효주 목사(Associate Director)
koreandmin@cst.edu
Tel:1-973-713-3009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63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WCC와 WEA의 대화, 그 중심엔 '예수' 놓아야

WCC 마틴 로브라 박사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윤 박사)이 22일 서울 대치동 서울교회에서 'WCC(세계교회협의회)-WEA(세계복음연맹) 대화(Dialogue)'를 주제로 제42회 학술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학술원 원장 이종윤 박사가 주발제자로 나섰고, WEA 신학위원장인 토마스 쉴마허(Thomas Schirrmacher) 박사와 WCC 프로그램위원장 마틴 로브라(Martin Robra) 박사가 각 기구를 대표해 발표했다. 양 기구의 한국측 인사로는 금주섭 박사(WCC세계선교와전도위원회 총무)와 김상복 박사(WEA 국제이사회 의장)가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양 기구의 '차이'보다는 교회의 연합과 선교를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강조했다. 주발제자인 이종윤 박사의 논문 제목도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지평-연합과 선교에 대한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적 이해의 수렴'이었다.

교회일치와 선교연합의 필연성 · 당위성은 예수 안에

이 박사는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와 2014년 WEA 서울총회를 앞두고 있다"며 "두 기구의 총회를 앞두고 이번 대화를 통해 교회사적으로나 선교사적으로 새로운 신학적 지평이 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교협력과 교회일치를 위한 이러한 신학적 대화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WCC와 WEA 사이의 대화가 '교회일치와 선교연합'이라는 공통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양 기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화의 중심에 놓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교회일치와 선교연합의 필연성과 당위성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한 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연합 위해선 예수와 그 사역이 주제되야 복음과 진리 유보는 기독교 자체와 조화 안돼

이어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한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연합에 관한 것보다는 각 교파의 교리적 혹은 신학적 주제,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관심에 관한 대화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따라서 WCC와 WEA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분의 사역에 관해 최우선적으로 폭넓게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박사는 특히 '교회일치'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교회일치운동은 로마의 바티칸과 같은 유일한 최고주무기관, 즉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각 지체처럼, 각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돕고 인정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WCC: 전도와 선교 강조하면서 복음주의와 대화 늘어

이후 양 기구측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WCC의 마틴 로브라 박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유: 협동의 새 지평'을 제목으로 한 발표에서 교회연합과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WCC가 점차 그 관심을 선교와 전도로 옮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WEA를 비롯한 복음주의권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음을 밝혔다.

로브라 박사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WCC와 WEA 총회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열린다. 이 우연한 일치는 과거의 긴장을 극복하고 상호간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도와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부르심과 함께 WCC의 DNA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 연합회로서 WCC의 형성은 복음주의운동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켰다"며 "이것이 소외로 이어졌고 WCC가 '초월적 교회'(super church)를 추구한다는 의심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바티칸Ⅱ공의회 이래로 가톨릭교회와의 협동이 밀접하게 이뤄진 것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로브라 박사는 "지금은 이 간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결실을 보고 있다"며 "진정으로 WCC 내에서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의 존재와 영향력이 선교와 전도, 복음주의자들과의 대화, 오순절교단과의 접촉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야 함을 잊고 세상적 안건에 팔려간 세속적 기구로서의 WCC의 모습이 수정되었다"며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이웃,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수평적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브라 박사는 "WCC와 WEA, 로잔운동의 회원 교회들 사이의 관계는 다중적이다. 우리는 이들 기구들에 서로 중복되는 회원이 제법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WCC 총무가 2011년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전도를 위한 제3회 로잔총회와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22회 오순절 세계대회에 연사로 초청됐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런 일들이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것처럼 보였던 새로운 합의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WEA: 대화, 기독교 진리 유보하는 것이라면 주의해야

WEA의 토마스 쉴마허 박사 역시 오늘날 WCC와 WEA로 대표되는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 양자 사이의 구분은 점점 그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WEA와 그 회원교회들은 WCC의 헌장에 동의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가지지 않는다. WCC의 회원교회들도 WEA의 신앙고백이 언급하는 모든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쉴마허 박사는 "WCC는 이전의 '국교회'들을 좀 더 많이 회원교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변하고 있다"며 "일부 이전의 국교회 또는 다수에 속하는 교회들이 최근에 와서 좀 더 보수적으로 또는 심지어 복음주의에 속하는 교회가 되었다. 오늘날 '자유주의'를 오랜 전통을 가진 주류 교회들에 더 이상 연관시킬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보수주의'를 전통이 얕고 규모가 좀 더 작으며 독립적인 교회들에 연관시킬 수도 없다"고 말했다.

WEA 토마스 쉴마허 박사

그러나 그는 연합과 대화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위해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은 자칫 새로운 사람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복음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경향을 띨 수 있다는 것"이다.

쉴마허 박사는 "대화가 평화로운 논의, 정직하고 참을성 있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의미할 때, 대화는 그리스도의 덕목"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를 약화시키고 세계선교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대화는 상상할 수도 없다. 그것은 기독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절대적인 진리들을 일시적으로나 원칙적으로 유보하라고 요구하는 대화는 바로 성서적 계시를 다른 종교들의 신념들이나 세계관들과 대등하게 놓는 것이기에 그것은 기독교의 선교활동, 그리고 기독교 자체의 본질과 조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WCC-WEA, 이분법적 접근 삼가야

금주섭 박사 역시 WCC와 WEA 양 진영의 협력을 주문했다. 금 박사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의 거센 도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WCC로 기구화된 에큐메니칼 운동과 WEA로 기구화된 복음주의 운동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더 이상 이런 도전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복 박사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셨다. 그 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가톨릭이나 WCC, WEA, 장로교나 감리교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다"면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에게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WCC, WEA, 로잔 운동에 관계 없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원히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WCC-WEA 대화'를 주제로 한 한국기독교학술원 제42회 학술공개세미나가 서울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 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월드타운 치유센터/기도원
이제 멀리가실 필요없습니다. 한인타운 중심지에 있습니다.
병고침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신유의 은사로
각종 암병, 중풍, 우울증, 신경통, 당뇨가 치료되며
사명자들은 사명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됩니다.
자녀, 가정, 사업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월드타운 치유센터로 기도하러 오세요.
원장 이 엘리사 목사
개인 기도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월드타운 치유센터 간증자들 .....
성령의 강력한 병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 목사 323.496.2550 자궁암 말기, 저혈압 완전치유
제니 변 323.383.1917 마약, 도박중독, 우울증말기 완전치유 현재 주방봉사
김 경수 213.248.7379 당뇨, 담석말기 완전치유
정영호 집사 213.364.4477 천식, 가래기침, 대상포진 완전치유
여호수아 변 818.288.3992 불면증, 시력이상W 비존, 무릎 관절염, 아토피 완전치유
이 승호(다윗) 213.570.0818 우울증, 대인기피증 완전치유 현재 찬양사역 봉사
정 민례 213.382.3258 우울증, 도박 완전치유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치유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365일 예배안내 오전 5시 30분 / 낮 11시 / 저녁 7시
각종시설 및 개인 기도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벌몬트+피코)
24시간 전화 213-382-3258/ 213-725-3007
주소1331 S.Vermont Ave. L.A. CA 90006

종교개혁 495주년, 장로 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언약교회 신앙강좌 장로교회의 특성 조명

종교개혁 495주년을 기념해 이승구 교수(합동신대)가 시무하는 언약교회에서 20-21일 오후 6시 신앙강좌가 개최됐다. 강좌는 첫날 김열 교수(고신대)의 '개혁파 교회 장로 제도의 이론적·실천적 의미', 둘째날 이승구 교수의 '제1치리서와 제2치리서를 통해 본 장로교회의 특성' 등으로 나뉘어 열렸다.

남아공 개혁교회로 본 한국교회 장로직분 개혁

김열 교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개혁교회 장로직을 모델로 한국교회 장로직 개혁에 대해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장로직은 사도시대 신약성경에 근거한 직분이었으나 중세 교권체제에 의해 감독의 시중을 들면서 그 고귀함이 전락했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이 개혁하고 회복한 제도이다.

김 교수는 한국 장로교회 헌법에 나타난 장로들의 직무로 △목사와 함께 행정과 권징 관리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교인 심방·위로·교훈 △교인 권면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 양육 △교인을 위해 기도와 전도하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 등을 꼽았다. 이와 비교해 남아공 개혁교회 장로들은 구역을 맡아서 돌보거나 목사와 함께 목양을 하고, 성찬식 준비와 참석 여부를 점검하거나 은사와 사역에 따른 역할을 배치하며, 집사회와 협력 및 견제를 하면서 목회의 조언자와 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공 개혁교회 장로 피택과 임직 과정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남아공 개혁교회는 장로들을 개교회에 속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로들의 수결정과 피택, 장립 등이 전적으로 당회 소관 아래 있다"며 "장로 결원 혹은 증원이 필요할 경우 약 4주간 교회에 후보 천거를 부탁하고, 교인들의 천거 편지와 함께 당회는 모든 남성 세례교인들을 체크하면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당회에서 살핀 다음 배수를 뽑아 교회에 공천하고, 모든 교인들이 투표하여 뽑는다.

이를 기초로 한 효율적 당회 의사결정 절차를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당회원으로서 의견을 내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성경적이고 법적으로 검토된 사항들을 개진하고, 당회 소집 1주일 전 전 당회록과 안건을 미리 주면서 모든 당회원들이 사전에 심사숙고한 후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토론 중에는 다른 이들의 인격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제안된 안이 제직회 승인이 필요하거나 바로 부서에 일임할 수 있는 일인지 구분하며, 중요한 결정의 경우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의된 사항은 책임지고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진행 사항을 사후 보고받으면서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김열 교수는 "장로들은 늘 성경과 예수님의 뜻에 합치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교회의 신앙고백이나 교회법 등에 위반되지는 않는지를 살피고, 교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정리했다.

스코틀랜드 전체 교회와 학교 성경적 정비하려 한 문서

미리 배포된 자료집에 따르면, 이승구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피면서 스코츠 신앙고백서(1560)와 더불어 스코틀랜드 전체 교회와 학교의 조직을 성경적으로 정비하려 한 제1치리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1560)와 이를 후에 변경한 제2치리서(The Second Book of Discipline·1577-8)를 소개했다.

왕실 군대와 전쟁까지 치른 끝에 1560년 7월 6일 에딘버러 조약으로 영국과 프랑스군이 동시 철수함으로써 스코틀랜드는 독자적으로 정치적·종교적 문제를 개신교적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개신교파는 존 녹스(John Knox) 주재 하에 1560년 7월 19일 감사예배를 드리고, 가톨릭과의 계속적인 투쟁에 나서는 한편 교회의 조직과 체제에 대한 계획을 담은 제1치리서를 12월 에딘버러 총회에 제출했다. 이 문서는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나, 교회는 독자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총회로 모여 이 치리서 내용대로 교회와 사회 전체를 개혁하려 했다.

제1치리서는 제1항 교리편에 다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한 머리로 명령하여 세우시고 그의 양들이 따르도록 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 그의 복음이 이 왕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모임에서 참되고도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의 복음에 위반되는 모든 교리들은 사람의 구원에 도움이 안될 정도가 아니라 정죄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져서 온전히 배제되어야만 한다.'

이후에는 성례 문제, 우상숭배 폐지 문제, 목사 선출 문제, 목사들에 대한 사례와 교회 재산 및 임대료 분배 문제, 치리 문제, 장로·집사 선출 문제, 혼인·장례 등 정책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제2치리서는 녹스 사후 지도자 역할을 했던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e) 주도 하에 작성됐으며, 스코틀랜드에 철저한 장로교 조직이 형성되는 데 기여했다.

이승구 교수는 "여기서 '성경적'이라는 말은 명확한 성경적 근거를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 보다 바른'이라는 뜻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언급된다"며 "제1·2 치리서에서 언급된 구체적 사안들은 폭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승구 교수

이 교수는 "이 문서들의 또 하나의 특성은 스코틀랜드 전체 교회와 학교의 개혁과 관련된 문서라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도자들이 성경적 견해를 갖고 있으면 이러한 '국가 교회(national church)'적 생각이 의미있고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이상이 오히려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네덜란드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애통하면서 참 교회를 선언하고 나와야 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한국교회 신학, 목회의 아군인가 적군인가

성결대 50주년 심포지엄 문성모 박사 지적

문성모 박사가 주제강연하고 있다.

영암신학사상연구소와 한국신학회가 성결대학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며 22일 안양 성결대 학술정보관에서 '한국교회 갱신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영암신학사상연구소는 성결대 설립자인 故 영암 김응조 박사가 남긴 저서의 연구, 개정·편찬 사업을 통해 영암의 신학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 집대성하여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교단의 보수신앙 정립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소장 정상운 박사는 "국내 석학들의 혜안을 통해 복음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한국교회의 갱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모 박사(서울장신대 총장, 한국신학대총장협의회 회장)는 주제강연에서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전했다. 문 박사는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과제로 ▲위선의 문제 ▲목양의 문제 ▲문화의 문제 ▲주체성의 문제 ▲신학의 문제를 제시했다.

문 박사는 문화 문제와 관련, "한국교회는 문화에 도무지 투자하거나 가치를 두지도 않고 정책이나 안목도 없이 그저 몸집 늘리기에 혈안이 된 것 같다. 문화 없는 종교는 부도덕한 거대 사이비 집단이 될 수도 있다"며 "문화는 우리 신앙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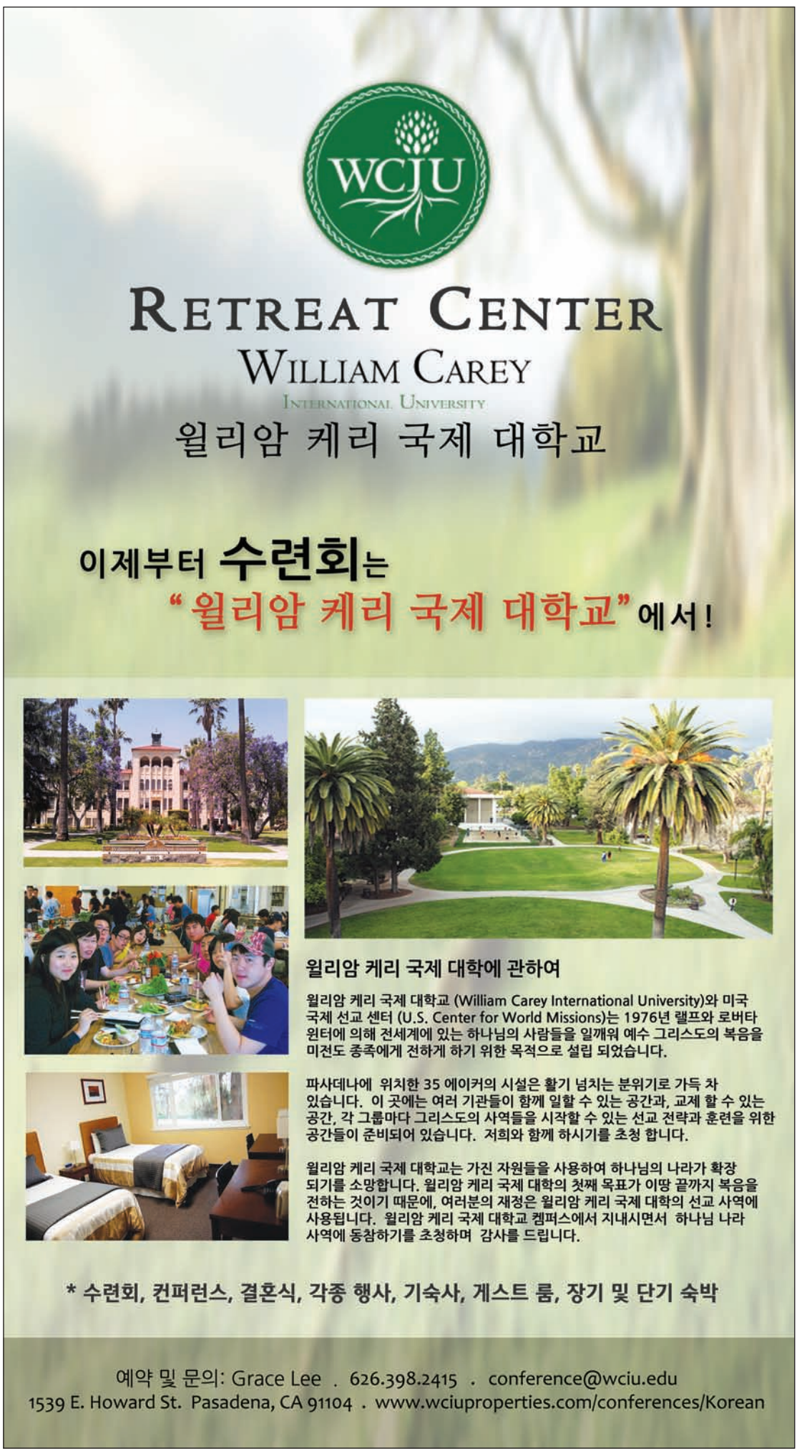
또 그는 신학의 문제와 관련, "신학은 교회의 목회적 측면에서 볼 때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한국에 약 1,000명의 전문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호교론자가 되어 교회를 변호했다면, 교회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신학자들은 교만한 지식인의 집단이 되어 어머니격인 교회에 대해 회개하라고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안티기독교 세력의 자료들 중 상당수는 신학자들로부터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 신학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길을 버리고 교회의 부패와 상처를 정말로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신학자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동료를 모두 죄인으로 만들고 자신만 영웅이 되려는 태도를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박사는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토론문화의 정착 ▲다종교 사회에서의 지혜 ▲종말신앙의 강조 ▲신앙의 한국화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권위주의의 탈을 벗어버리고 문제점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 전문가들도 각 분야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또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서양화되어 있으며, 동양종교가 가진 정(靜)의 신학을 상실했다. 기독교가 민족종교로서 시민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 순서는 〈1부 개회예배〉 사회 박창영 박사, 개회사 정상운 박사, 기도 김희신 목사(성결신학원 이사), 설교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환영사 주삼식 박사(성결대 총장), 축도 김소암 목사(예성증경총회장), 〈2부 심포지엄〉 주제강연 문성모 박사, 패널토론 목창균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 임성택 박사(그리스도신대 총장) , 〈3부 논문발표 1〉 좌장 전요섭 박사(성결대 신학전문대학원장), 연구발표 이은규 박사(안양대), 신문철 박사(한세대), 박창영 박사(성결대), 〈논문발표 2〉 좌장 전정진 교수(성결대), 연구발표 김태연 교수(GPI 대표), 김순환 박사(서울신대), 오현철 박사(성결대), 〈4부 폐회예배〉 사회 최기수 박사(교목실장), 기도 구본영 박사(성결대 교무처장), 설교 나세웅 목사(예성 부총회장), 폐회사 정상운 박사, 축도 윤종관 목사(예성 증경총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은규 교수는 '21세기 기독교교육의 본질과 사명'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기독교교육은 한국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교회 갱신, 기독교적 관점 확립, 말씀의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회는 평생교육시스템을 갱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고, 신문철 교수는 '경건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교회 개혁'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하나님 말씀의 회복, 만인제사장직 회복, 신학교육의 개혁을 교회 개혁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신태진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맞선교회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성경공부 오후7:30 (화) 오전10:30 (수) 금요저녁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운타운 4가 Crocker St.) 1부거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김혜성 담임목사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5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25(월-금)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LA동부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휄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청소년부 오전 11: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HYUNDAI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존엄사 논란 종결됐지만… 아직

이성은 자매 퇴원 가로막혀 치료 불가능

이만호 목사(좌)와 제이 김 집사(우)

"하나님의 은혜로 제 딸이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됐고 안락사는 이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병원측이 사실상 퇴원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 다른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 이만호 목사의 자녀 이성은 자매에 대한 존엄사(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환자 이성은 자매의 의사결정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과 병원측의 가족대표에 대한 권한 인정으로 완전히 종결됐으나 병원측이 불합리한 방법을 동원해 이성은 자매의 퇴원을 견제하면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목사는 16일 오후 순복음안디옥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종결된 이후 사실상 퇴원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을 호소하면서 딸 이성은 자매가 속히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계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목사는 "기자회견을 꼭 해야겠다고 한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컨디션이 아주 좋아졌던 성은이가 병원의 횡포로 점차 힘들어져 가고 있고 답답해하고 더욱 심한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저히 불합리한 상황을 두고 보기 힘들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 발언에 앞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9월 23일 저희 딸이 지금 있는 병실에서 죽었을 수도 있었고 또 10월 1일도 계획된 시간에 안락사가 집행될 위험이 있었는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이어 "현재 이성은 자매는 말씀으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오빠들과 가족들과 의논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겨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저는 매일 끝을 보고 있다. 아버지이지만 목사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동안의 이성은 자매의 병원 업무와 법정 투쟁 등을 뒤에서 도운 제이 김 집사(뉴저지소망교회)가 참석해 현재 이성은 자매가 입원해 있는 노스쇼어 병원이 퇴원 방해를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불합리한 처사를 보이고 있는 점을 밝히면서 당장 이성은 자매를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집사는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존엄사와 안락사에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말하고자 했던 것은 병원에서 얼마나 불합리하게 우리 가족들을 대했는지에 대한 것으로, 감춰지거나 안 보이는 부분이 많았기에 기자회견을 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김 집사가 밝힌 가장 시급한 문제는 23곳의 뉴욕의 요양원이 노스쇼어 병원의 소셜 워커와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이성은 자매를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받아줄 요양원이 나와야 퇴원이 가능하지만 병원측과의 대화를 나눈 이후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던 요양원이 모두 등을 돌리면서 퇴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집사는 "퇴원이 막힌 상태에서 계속되는 필요 이상의 투약으로 환자를 약물 중독으로 몰고 간다"며 "지난 병원에서는 0.5ml의 수면제를 한번에 처방했지만 노스쇼어 병원은 한번에 1.00ml를 그리고 며칠 후에는 2ml로 늘리더니 한 번에 수면제를 6ml 가까이 처방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 이 목사 가족들이 지적하고 있는 병원측의 문제는 △환자 부모와 가족에 대한 권한이 인정됨에도 제대로된 행정적 절차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행하지 않았던 점 △중환자실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현재의 고통완화 병동으로 이송할 때 전혀 설명이 없었던 점 △말기 환자라고 판명한 이후 치료는 않고 고통 완화를 위한 수면제와 몰핀 등만 투약 △소수민족에 대한 통역 부재 △계속된 의사와 소셜 워커, 간호원의 약속 불이행으로 환자를 심각한 위기로 몰고감 등이다.

특히 약물투약과 관련해서는 "하루에 2-3시간마다 한번씩 2-3가지 약을 병행해서 투여하면서 계속된 약물 투여를 부추기고 있다"며 "거의 모든 약이 뇌종양 치료와는 별개인 수면제와 마약성분의 진통제뿐이고 약물에 중독된 환자는 고통받고 있다"고 당장의 퇴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만호 목사는 이 같은 병원 내부의 사정을 밝히지 않으려 했으나 계속된 불합리한 처사에 언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이틀 전 너무 많은 약을 투여해서 아이가 위급한 상황까지 갔었다. 지금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계속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대원 기자

뉴욕교협 총회 열고 새롭게 출발

교협회관 이전추진위에 전권 위임

뉴욕교협이 화해 가운데 힘찬 출발을 알렸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화합 가운데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22일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과거의 앙금을 씻고 새로운 화해의 길로 가는 화합의 총회로 진행됐으며 교협은 이 같은 화해 분위기 속에 새롭게 출범,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차기 임원이 모두 단독입후보였던 이번 정기총회는 특별한 선거전을 치루지 않고 무난히 차기 임원을 선출했다.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기표소를 준비했으나 화해의 분위기 속에 선거 없이 순조롭게 차기를 잇는 임원들이 나오게 됐다.

이날 정기총회의 유일한 신안건이었던 교협회관 이전추진위원회 전권 이임에 관한 건도 별다른 반대없이 순조롭게 통과됐다. 교협회관 이전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전권을 맡아 새로운 뉴욕교협의 미래를 여는 새 회관 건립에 앞장서게 된다.

38회 정기총회는 신안건 토의가 이뤄진 후 곧바로 폐회됐으며 참석한 총대들은 뉴욕예일장로교회가 마련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시종 화목한 분위기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고 해산했다.

김종훈 목사는 정기총회 폐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해의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이번 회기가 출발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심사숙고하여 임원을 선출해 정말 복음을 위한 뉴욕교협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빌리 그래함, "롬니에게 표를" 일간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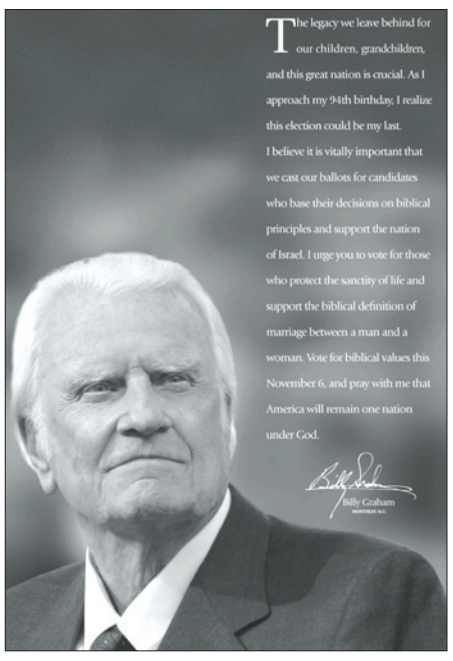
동성애 반대, 낙태 금지, 종교 자유 지키자 강조

빌리 그래함 목사가 롬니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발표했다. 이는 최근 그래함 목사가 롬니를 만난 후,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 웹사이트에서 몰몬이 이단이라는 구절이 삭제된 후 게재된 광고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오하이오 주의 콜럼버스 디스패치에 지난 주일 낸 광고에서 "나의 94번째 생일 하루 전날이 바로 선거일"이라고 운을 뗀 후, "미국은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 간에 이뤄지는 성경적인 결혼을 지지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며 종교자유를 수호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 하고 있다. 나와 함께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이 광고는 롬니를 적극 지지하는 광고라 볼 수 있다. 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와 낙태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그래함 목사는 USA투데이, 월스트릿저널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광고를 낸 바 있다. 김영신 기자



빌리 그래함 목사가 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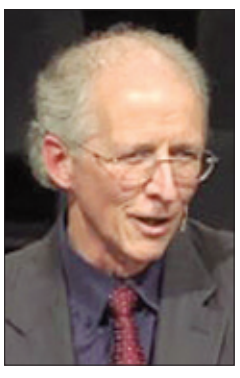
존 파이퍼 "동성애 속에는 우상숭배 숨겨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미네소타 베들레헴침례교회 담임이자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존 파이퍼 목사가 최근 "동성애는 왜 잘못됐는가"를 주제로 한 칼럼을 게재했다.

파이퍼 목사는 이 글에서 성경을 기초로 동성애의 잘못됨을 지적해 나가야 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동성애적 감정을 품는 것 자체를 모든 죄 중 가장 추악한 죄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청했다. 그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한 감정'은 인간의 '선택'을 전제로 죄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애 유혹을 겪는 이들을 설득했다.

파이퍼 목사는 "동성을 향한 사랑의 감정 속에는 깊은 우상 숭배가 숨겨져 있다"면서 "인간은 상처, 깨어짐으로 인해 죄를 낳을 수 있는 감정이 생기지만, 그것을 죄로 끌고가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존 파이퍼 목사의 칼럼 번역 전문.


존 파이퍼 목사

동성애는 왜 잘못됐는가
(Why is homosexuality wrong)

모든 죄는 그것이 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인지 다양한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더 깊이 설명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다.

동성애가 틀렸고 피해야 한다는 것은 로마서 1장 24~29절에 명확히 제시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9절~10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수식하는 말을 통해 죄들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별히 '동성애' 뿐 아니라 탐색하는 자, 우상숭배 등 여러가지 죄를 함께 나열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 당신이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할 거야"라고 말한다면,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건 틀렸으니 하지 말라" 식의 권위주의적 답변이다. 그러나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라는 질문 앞에는 다양한 접근의 답변이 필요하다.

성(性)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1)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한 육체가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性)에 관한 방법이다. 여자와 남자는 상호보완적으로 아름답게 창조됐으며, 서로 한 육체가 되도록 지어졌다.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성을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며, 부패한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식을 거스르는 역기능적인 것이다.

2)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은 동성애를 이런 식으로 풀어놓고 있다. 내게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맞바꿀 때,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꾸는 가장 주요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라고. 당신이 갖고 있는 우상은 당신 자체다.

당신의 성(性)은 당신 자체이기도 하지 않은가? 내 성은 남자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여자라면, 당신의 성은 여자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과 맞바꾸려는 가장 소중한 우상이, 동성에게 사랑에 빠지는 '우리 자신'이라는 말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요점은 동성에게 끌리는 사랑의 감정은 우상 숭배의 역기능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도 있다. 내 말을, 오직 동성애적 유혹이 자신을 우상화하는 데서만 온다고 듣지는 말라. 그러나, 로마서 1장 24~29절을 보고, 23절에서 나타난 "썩어질 형상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었다"는 것과 26절에 나타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썼다"는 말을 비교하라. 똑같은 '바꾸었다'는 단어가 반복돼 나타나고 있다.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도 아니다. 동성간의 관계 속에는 깊은 우상 숭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동성애가 우리에게 나쁜 또 다른 이유들이 더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그 입장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들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이라고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깨어짐(Brokenness)'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라. "내 마음이 깨어졌습니다(Broken). 그리고 나는 내 성에 관해 깨어져 있는 상태임을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나는 깨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깨어져야 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깨어져야 할 죄의 결과이다. (동성애적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감정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 성애자인 내가 가지는 감정보다 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非)자연적인 것이고, 깨어진 상태일 뿐이다.

나는 내가 가진 이성애적 성을 거룩하게 할 것인지 죄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듯이 동성애적 감정도 마찬가지다. 동성애적 유혹으로 씨름하는 사람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선택권이 있다. "그것으로 죄를 짓느냐? 아니면 극복해서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양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모든 죄 중에 가장 추악한 죄로 고립시키는 것처럼 듣지 말라. 이것은 나도 공유하고 있는 상함(깨어짐)이기 때문이다.

나의 성격에도 결함이 있다. 구체적 예를 들면 화를 내거나 자기 연민의 감정을 가지는 것 등이다. 나는 그런 종류의 죄를 짓기 쉬운 것 같다. 내 생각에 이것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으며, 내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그런 것을 보았다. 이것은 가족에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게 또한 나다. 나는 깨어져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상함이 나를 다스리게 해서, 죄로 달려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하며 반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내 상처에 대면해 죄를 피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뤄낼 거야"라고.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2:45 /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1부예배(EM) 오전 9:45 / 2부예배(EM) 오후 1: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찬양 오후 7:30 / 장애인예배 오전 10:00 / 영어장년부 오전 10:00 /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30 /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박용덕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 Youth 예배 오전10:30 /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최성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8:00 / 2부예배 오전10:00 / EM/Youth예배 오후12:00 / AWANA 오후12:3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1:00 / 새벽기도회 오전5:30(화-금) / 오전6:00(토) / 금요찬양예배 오후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 2부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손인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베델한인교회
우리가크리스천이다.내가 크리스천이다.하나님은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11:00 /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00 / 3부예배 오전 10:30 / 4부예배 오후 12:15
5부예배 오후 2:00 / EM예배 오후 12:15 / 수요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ilovecpc.org

지 샤론 담임목사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오후 7:30 /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균형잡힌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재화, 생활화,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받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 주일학교 오후 1:30 /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찬양 오전 11:15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 청년부예배 오후 2: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 2부예배 오전 09:30 / 3부예배 오후 11:30 /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 토요일 오전 06:00 /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사우스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열린예배 오후 2:00 /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 2부예배(EM) 오후 1:15 /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박세록 대표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 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예배 오후1:30 /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 주일학교 오전 11:00 /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제자되어주님과사람을 뜨겁게사랑하며섬기는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 2부예배(EM)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 중/고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30 /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 5부예배 오후 3:00(KM청년)
장애우예배 오전10:00 / Toddler - Youth 오전11:30 /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am / 수요예배 오후 8:00 / 금요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이성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9:30 /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후 12:00 / 아동부예배 오전 11:50 /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성현경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0:00 / 스페인예배 오전 10:00 / 한국어 오전 10시 (윌로우쉽홀) 오후12:00 (본당)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후 6:00 (토) / 수요예배 오후 7:45 /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00% 미국 야생 천종 산삼

안전한 인터넷 쇼핑몰 www.KBSmall.com

가을 햇산삼

3차 가격파괴 대세일

3차 가격파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올해는 가뭄에 폭서로 인해 심마니들의 활동이 부진하여 산삼 유통 가격이 폭등하였으나 현지 딜러와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종전 가격대에 대량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수량은 한정되어 있으나 충분한 공급량이니 서둘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증된 천종산삼 3차 가격파괴 가격표

	산삼수령	뿌리당 무게	파운드당 가격/454g
1호:	60-120년근	23-35g	~~$2,400~~ → $1,700
2호:	50-80년근	15-22g	~~$1,700~~ → $1,200
3호:	30-50년근	9-14g	~~$1,400~~ → $1,100
4호:	20-30년근	5-8g	~~$1,200~~ → $850
5호:	10-20년근	2-4g	~~$900~~ → $550

특호와 150년 이상된 스페셜 진귀산삼은 뿌리당 별도 가격이 적용됩니다

생삼일지라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식품검역소, 면세통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산삼도매 한인 최대 유통회사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300여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업체

HQ 山參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산삼의 가격 3차 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NY, PA, VA, NC, WI 최상급
산삼 자생지에서만 채취해 옵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싱싱하게 보존해 판매합니다.
씹거나 달이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시도록 복용법을 드립니다.
홍삼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고
있지만 진짜 야생 산삼입니다.

~~70그램~~ 130그램/ 평균 10-30년근 30~40뿌리

$200
소매가 ~~$1,000~~

~~200그램~~ 270그램 / 평균 40-50년근 20~30뿌리

$600
소매가 ~~$3,000~~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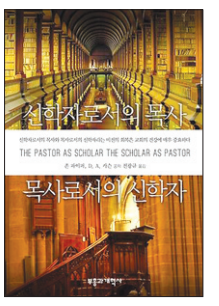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BOOK

신간추천

신학자로서의 목사 & 목사로서의 신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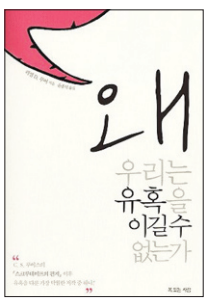
존 파이퍼, 돈 카슨/전광규 | 부흥과개혁사 | 136쪽



이 책에서 존 파이퍼와 돈 카슨은 목회자와 신학자가 신학적 깊이 및 실천적인 초점을 모두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회자-신학자 및 신학자-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과감하게 제시한다. 이 책은 통찰력과 균형감을 가지고 학문과 목회의 간격을 메우도록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지침을 제시한다.

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가

러셀 D. 무어 | 복있는 사람 | 292쪽



이 책은 인간이 늘 맞닥뜨리는 유혹과 시험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예수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현장을 펼쳐 보이면서 당시 마귀가 사용한 오랜 전략들을 드러낸다. 저자 특유의 방대한 성경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알뜰한 지침들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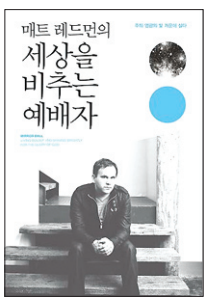
교회 3.0

닐 콜 | 스텝스톤 | 416쪽

전작 〈오가닉 처치〉에서 '유기적 교회'라는 개념을 소개한 바 있는 저자는, 이제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 적용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풀어냈다. 이 책은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사람들을 전도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세상을 비추는 예배자

매트 레드먼 | 예수전도단 | 184쪽



"마음의 예배",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등 주옥같은 찬양들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찬양인도자 매트 레드먼. 그는 이 책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에 대해 진솔하고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은 글을 풀어낸다.

밀라드 에릭슨의 〈기독교 신앙과 포스트모더니즘〉

이제는 '고전'이 된 리처드 니버(Richard H. Niebuhr)의 1951년작 〈그리스도와 문화(IVP)〉는 '주님'과 '문화'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5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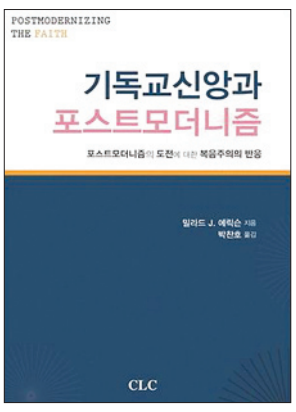
고작 70여년이 지났을 뿐인데,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더 심각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전방위적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에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복음주의자들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이들로부터, 거의 전적으로 포용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다.

조직신학자 밀라드 J. 에릭슨은 〈기독교 신앙과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zing the Faith·CLC)〉에서 70년 전 니버가 그랬듯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에 대한 복음주의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니버가 그랬듯 강좌를 통해 발표된 글들을 모았지만, 서술 방법은 니버와 달리 이 시대를 사는 저명 신학자 6명의 입을 빌렸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여섯 가지 반응들 중 '부정적 응답'부터 들여다 보자. 먼저, 고든콘웰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데이비드 웰스(David Wells)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는 현대 복음주의를 비판하는데, 근대성을 이것과 연결시키고 있다. 〈신학 실종〉·〈윤리 실종〉·〈용기있는 기독교〉 등 그의 유명한 저작은 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니버와 함께 예일대에서 공부했던 경험이 있는 토마스 오덴(Thomas C. Oden) 드류대 신학교수는 '미래로 돌이키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조차 없었던 시절을 살았지만, 몰려오던 그 흐름을 일찌기 인식하고 개척자적인 자세로 '이성에로의 도피'를 내세웠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긍정적 응답도 세 가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WPA)〉,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IVP)〉을 썼던 스탠리 그렌츠는 복음주의자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현상의 빛 안에서 변증학과 신학을 형성할 것을 분명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그의 주장은 "어떤 복음주의자도 가보지 않은 곳까지 담대히 가보자"로 요약된다.



밀라드 J. 에릭슨
기독교문서선교회 | 248쪽

세계관을 다룬 〈그리스도인의 비전(IVP)〉를 공저했던 리차드 미들턴과 브라이언 왈시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살림)〉을 통해 새로운 상황을 맞아 달라진 기독교 세계관을 주장한다. 이 책의 원제는 이렇다.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진리는 이전과 다르다'. 가장 급진적인 경우인 빌리 케이스 퍼트(Billy Keith Putt)는 '해체주의적 복음주의'를 부르짖는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복음주의자'라는 정체성을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자는 6가지 응답을 서술한 후 질문하고 있다. "해체된 말이 물가로 갈 수 있는가?" '포스트모던적 변증학'의 가능성 모색이다.

김의원 백석대 부총장은 추천사에서 "결국 신학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책을 시작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모색·탐구돼 21세기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훼이스 기독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통신생 대모집 online

2012년 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가을학기 · Th.D · Ph.D학위 7명, · M.DIV학위 7명 $10000,00 장학금지급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1.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믹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2.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특전: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 가입**되어 미국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3.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4.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5.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① Dallas Theological Seminary
   ③ Lee University
   ⑤ Oral Roberts University
6. **통신강의** (아카데믹 학위취득)
   ② Indian University
   ④ Liberty University
   ⑥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신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통신생 전공 최상의 장학금 지급 · 편입생 우대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DIV)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TH.M)	96		
	교육학석사(M.C.E)	96		
	상담학석사(M.C.C)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목회학박사(D.Min)	32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48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상담학 Ph. D.	48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협력학교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213)503-5330 수시접수

건빵은 빵입니까, 비스킷입니까? 세습은 복음적입니까?

양성필 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어느날 저녁에 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주제로 목자 훈련을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건빵은 빵일까요? 비스킷일까요?" 물으시는 겁니다. 몇 사람은 빵이다, 몇 사람은 비스킷이다,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질문한 집사님의 대답은 "건빵은 빵입니다. 아무리 딱딱해도 이스트가 들어 갔으면 빵이고,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면 비스킷입니다"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시니 맞겠지요.

이번에는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를 떡과 포도주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만찬에서 말하는 빵은 Daily bread이니까, 우리 말로는 떡보다는 밥이 낫지 않을까요?"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컷 웃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단이 나뉘고 분열이 생긴 것은 말씀에 대한 해석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찬에 대한 해석과, 세례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의견이 나뉘면서 교회가 나뉘고 교단이 나뉘었습니다. '세례는 침례가 맞다, 뿌리는 세례가 맞다' 해석상의 갈등으로 교단이 나뉘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열두 사도들의 전승'이라는 책을 보면 '흐르는 물이 있으면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하라. 그러나 흐르는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하라. 침례를 할 수 없으면 물을 머리에 뿌려 세례를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꼭 침례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뿌리는 세례가 맞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중요하지, 엉뚱하게 교리에 대한 해석으로 교회가 나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찬에 대한 해석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화체설이라고 하여, 빵과 포도주에 예수의 몸이 실재적으로 임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공재설이라 하여 예수의 몸이 임하기도 하지만, 빵과 포도주의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존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영적인 의미이지 실제로 예수의 몸과 피가 임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츠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하여 성찬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념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어도 개신교는 성찬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고,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해석의 차이에서 교단이 나뉘었습니다.

사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하나되고,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하나되는 연합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세례와 성찬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교단이 나뉘고 교회가 나뉜 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왜 개신교는 수많은 분열을 거듭한 것일까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입니다. 가톨릭에 반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또 개혁(Reformed)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속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사제, 주교, 교황이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해결됩니다. 물론 마음 속까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교리에 있어서 사제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는 교리로 인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한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아무도 사제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개신교는 말씀만이 교리와 교회의 원칙이라는 주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와 성찬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듯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어느 한 사람의 주장만을 따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견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생각은 분명 건전한 생각인데,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금의 교회 세습 문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입니까? 한 교회를 수십년 목회한 목회자에게 같은 교회에서 직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99%가 복음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다면 99%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1%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아닌 해석상의 차이라면 얼마든지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세습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니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복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주님이 지킵니다. 누가 교회를 분열케 합니까? 사람입니다. 겸손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리운 때입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제일장로교회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은 아홉 남매의 장녀이신데 여덟 형제가 모두 텍사스에 살고 자신만 남가주에 살고 계신다. 그것도 모든 형제들이 이십분 거리 내에 산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가장 연로한 이 권사님을 모셔 가기로 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단 두 형제 간에도 서로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아홉 남매가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보기에 좋았다.

그러나 이 권사님은 한사코 이사를 거절하시고 여기서 지내기로 하셨다. 권사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형제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십년 정든 곳을 떠나는 것이 싫으셨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정든 교회 식구들 때문이었다. 권사님은 아주 조용하신 분이지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언젠가 우연히 권사님과 얘기를 나누다 권사님께서 우리 식구들 특히 아이들 이름까지 모두 줄줄이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날마다 우리 아이들 이름까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까닭이었다. 권사님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도 보이지 않게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셨다. 비록 육신의 피를 나누진 않았으되 예수의 피로 하나된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를 보살피고 아끼는 마음에는 목회자인 나까지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담금질과 벼름질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쇠는 담금질과 벼름질의 과정을 통해 길들여집니다.

담금질은 쇠의 재질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쇠를 뜨거운 불에 가열해서 갑자기 물이나 기름 속에 담궈 냉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뜨거울 때 팽창된 쇠의 조직이 붕괴되지 않고 그대로 굳으면서 강도가 세어집니다. 담금질을 반복하면 할수록 쇠의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달구어진 쇠를 담금질이 없이 그냥 천천히 식히면 쇠의 조직도 함께 변질되면서 연철이 되고 맙니다. 부드럽고 연한 쇠로는 아무 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낫이나 곡괭이, 그리고 삽과 같은 농기구는 단단한 강철이 아니면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휘어지고 뭉그러지는 쇠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금질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쇠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쇠를 강하게 만드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담금질을 할 때마다 경화되는데 잘못하면 쇠가 유리처럼 쉽게 깨어집니다. 담금질도 쇠의 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쇠를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 속에 담그면 온도의 차이 때문에 쇠가 일그러지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담금질을 한 후에는 휘어지고 일그러진 쇠를 다시 골고루 펴 주는 벼름질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쇠의 원형을 유지하고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담금질과 벼름질을 통해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다. 뜨거운 불 속에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오는 고난의 담금질을 당하면서 모나고 각진 성격도 원만해지고 자신의 한계도 아는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담금질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 지나치게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칫 본연의 소중한 자아상도 잃어 버리고 소심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벼름질을 통해 잔뜩 일그러진 내면의 슬픈 모습을 골고루 다독여 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여 위대한 승리를 거둔 대예언자 엘리야도 브엘세바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절망과 실의에 빠져 죽기를 구하는 연약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냈고 그 후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절망의 사십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낙향하여 어부로 지내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극심한 시련과 고난의 풀무로 뜨거운 담금질을 당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따듯한 격려와 위로를 통해 벼름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들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였던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조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받으라(딤후2:3)"

고난 속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고 또한 그 길에 승리가 있음을 바울은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앞에도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담금질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더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깨를 따뜻하게 도닥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따듯함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뜬 싸이와 어린 싸이들

장세규 목사
한빛지구촌교회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열풍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말춤은 이제 서구 사회의 고급문화 영역까지 퍼졌습니다. 누구나 따라 부르고 따라 추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강남스타일 열풍은 당연히 어린이들에게도 퍼집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강남스타일처럼 스타일을 갖추고 춤을 춥니다. 경연대회가 생기고 연예 프로그램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 머리를 싸이같이 꾸미고 검은 안경을 쓰고 마이크를 들고 외칩니다. "나도 커서 싸이 같은 가수 될래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인생의 모델로 삼습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되는 것과 그들이 이룬 성공을 자신의 목표로 삼습니다. 젊은 목사들은 가장 큰 교회 목회자를 목표로 삼고 큰 교회를 목표로 삼습니다. 컴퓨터에 관심있는 청년들은 빌 게이츠를, 어린 골퍼들은 타이거 우즈를 목표로 삼습니다. 투자금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워렌 버핏을,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상원의원 한 번에 대통령이 된 오바마 대통령을 목표로 삼습니다. 배우는 아카데미상을 받은 스타들을 목표로 하고, 영화인들은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감독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을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스타일을 모방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흉내 내고 그들의 목소리까지 닮으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이 타는 것을 타려고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닮아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공의 이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공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목표로 삼아 그들의 성취를 이루어 보려면 성공하기 전의 그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들이 성공하기 전의 모습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 것은 그들이 정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에 우뚝 선 사람들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가수를 흉내 내기 전에 그들이 어린 시절의 재능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간직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공한 가수의 노래를 모창하기 전에 그들이 십대 때 목소리 훈련을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한 것을 봐야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취물을 흉내내기보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젊은 시절의 독서, 교양, 문화체험,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감수성 개발, 역사와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공한 사람들마다 빠짐없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원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젊은 시기의 좌절과 실패입니다. 그들이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얻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겪은 좌절과 실패가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공은 단기 속성 학원에서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방 점수를 올리는 것은 한 달 특별 과정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경지에 오르고 일가를 이루는 일은 수십 년이 걸려야 가능합니다. 성공의 현재 모습보다 성공의 씨앗을 뿌린 "어린 시절"에서 배워야 합니다.

역대의 연대를생각하라

손영구 목사
산정현교회

신명기는 영어로 DEUTERONOMY 라고 한다. 모세가 2세들에게 주는 명령이다.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있는 것들의 반복이 많다. 모세의 염려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출, 해방을 준 하나님의 기적을 후세대들이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재차 2세들에게 주는 명령이 신명기이다.

명령의 핵심은 옛 일을 기억하라, 아비 시대의 역사를 생각하라, 잊지 말라는 것이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서 떠나면 망한다는 것이다. 오늘 한국의 후세대들에게 잘 적용되는 중요한 메세지이다.

10월 1일은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국군의 날이다. 이날에 한국에서는 위무도 당당한 국군들이 계룡대에 모여 축제를 베풀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40년간 살면서 구국운동,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해 오다가 나이 70세 되는 해 1945년,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이하며 한국에 들어간다. 귀국하자마자 2년 동안 많은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미국식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리하여 유엔 감시 및 인정 하에 1947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해 자유민주주의의 문이 열렸다.

그러나 신생 대한민국이 자라기 위한 조건은 너무도 나빴다. 조금 배웠다는 사람은 북한의 김일성과 손잡고 통일을 하자는 친북좌파들로 활동했다. 국민의 80%가 문맹자였다. 그러다 3년 후 6.25 전쟁이 터졌다. 군사교육, 군인조직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으니 신생 한국은 살아남기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은 유엔군 총사령관, 미8군 사령관과 군사작전을 논의하기에 충분하였고, 그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3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은 초강대국 미국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간파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한미원조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이 덕분에 남한은 군사적 열세 속에서도 북한으로부터 안전한 상황을 보장받게 됐다.

한미동맹으로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된 것을 젊은 세대에게 교육하며 미국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다. 한국의 종북좌파, 친북반미주의자들은 미국과 미군을 원수시하며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월남처럼 한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전략과 전술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 중에도 많이 있다. 앞으로의 앞날이 염려된다.

북한주민은 해방과 자유를 맛보아야 할 우리의 동포이나, 북한정권은 한국이 이겨야 할 적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을 살린 이 달을 뜻깊게 보내자.

기적 이상의 믿음

안인권 목사
워싱턴DC 새소망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같은 종말 상황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정문제, 경제문제, 국가적인 비극 등 우리는 온갖 불행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만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다. 창세기는 온갖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언한다. 창세기 1장이 말하는 대로 태초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무에서 창조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주만물의 주인이시다. 다음에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침투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제하지 못하셨다는 증거일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상황에서도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

다시 창세기 6, 7장을 보자. 당시 인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사악했다. 하나님은 홍수로 땅 위의 생명체를 모두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통제력을 상실하셨다는 증거일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세상에 다시 사람들을 퍼뜨리셨다. 노아의 가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였다.

홍수시대가 지난 뒤에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살려고 했다. 그들은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었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곧 이들에게 개입하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들의 계획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일단 계획을 세우시면 인간의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 그와 같은 패턴은 성경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혼란, 의심,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실망, 의심, 두려움, 외로움을 느끼며 고통 가운데서 인간적인 하소연으로 밤을 지새웠던 경험이 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고 역경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진리 안에 굳게 닻을 내려야 한다. 아무리 심한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확신한다면 마음 속에서 큰 능력과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한다. 신앙의 선조들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명확히 깨달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사실 하나님을 옹호할 의도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동의없이 그냥 일어난 사건일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우주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 성경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포해야 한다.

달고 맵고 짠 오묘한 맛 떡볶이

방과 후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즐겨먹던 추억의 분식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민음식

밥 이전에 떡이 있었다. 밥을 짓기 위해서는 무쇠솥이 필요한데 삼국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쇠붙이는 무기로나 쓰였으니 시루로 찌는 떡이 주식이었을 터. 한국인은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는 모름지기 떡을 먹는다. 최소한 떡을 사서라도 먹는다. 여기엔 한민족 특유의 유구한 공동체 정신이 깃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떡으로 만든 별미, 떡볶이가 밥상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우리 선조들은 간장 양념에 가래떡을 넣고, 쇠고기와 미나리, 숙주, 밤, 대추 등을 더해 먹었다. 가래떡이 들어가긴 하나 전체적인 이미지는 '잡채'에 가까웠다.

그러다 시대가 흘러 흘러 고추장이 일반화된 1960년대 즈음해 지금의 벌건 떡볶이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물론 이전에도 매운 맛의 떡볶이는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번철에 기름을 붓고 고춧가루와 마늘을 더해 볶은 정도로 일명 '기름떡볶이'라 불리는 음식이 바로 그것이다. 한때 서울의 재래시장에 이 기름떡볶이가 인기를 끌었으나, 어느덧 고추장떡볶이에 밀려났다.

한국인이라면 세계 어딜 가나 이 고추장떡볶이를 빼놓지 않고 만들어 먹는다. 기본적으로 달고 매우며 짠맛이 강하다. 고추장에 설탕을 듬뿍 넣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맵고 달콤한' 떡볶이가 된다. 여기에 어묵도 넣고 달걀도 넣는다. 자작한 떡볶이 국물을 잘 구워진 만두와 튀김, 순대 등과 곁들여 먹으면 남부러울 게 없다.

2천년대 후반에 들어 한국에선 떡볶이 세계화의 움직임이 불기 시작했다. 떡볶이야말로 한국 최고의 전통음식이며, 이를 전 세계에 알려 국가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열풍에 뒤질새라 떡볶이연구소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그야말로 떡볶이의 글로벌화를 위해 매운 맛에 약한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고추장 대신 토마토케첩이며 크림소스 등 서양의 소스류를 끼얹은 가래떡 음식을 선보였다.

한 유명 요리사는 서양의 3대 진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푸아그라를 올린 떡볶이라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라 단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강남의 일부 식당에서는 이런 '글로벌 떡볶이'를 메뉴로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인들은 여전히 매운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를 열심히 먹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익숙해진 그 맛이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일까. 쌀쌀한 가을 날씨에 고향의 맛이 그립다면, 추억의 떡볶이를 만들어 먹어보자. 단, 만들 때 포인트는 말캉말캉한 떡을 넣고 만들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다시마와 멸치, 무, 대파, 양파 등으로 우려낸 육수를 넣고 고추장과 고춧가루에 설탕과 간장으로 간을 하면 된다.

〈도움말: 한국음식문화박물지〉

떡갈비의 변신은 무죄,

한 입 뜯어보면 입맛따라 삼천리~

'떡'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또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떡갈비'다. 쇠갈비의 살을 발라 다져 양념을하고 뼈를 가운데 두고 살을 두툼하게 붙여 구운 음식이 바로 떡갈비다. 쇠갈비의 살이 적으니 여기에 돼지고기를 더하기도 하는데, 돼지고기의 기름이 떡갈비를 부드럽게 만드는 노릇을 한다.

떡갈비란 이름은 다진 고기를 치댈 때 떡을 치듯이 한다 하여 붙었다. 그 완성된 모양이 제사상의 시루떡 올린 모양 같다 하여 떡갈비라 붙였다는 설도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설이 있으니,
떡처럼
찰진 식감이 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주장이다.

어느 설이든 고기에 '떡'자가 붙어 있으니 고향이나 옛 시골 음식을 연상케 한다.

《한국음식문화박물지》의 저자 황교익 씨에 따르면, 떡갈비의 번창은 한국인의 편중된 식습관이 만들어 낸 '별종'의 일이라는 것. 소는 등심, 돼지는 삼겹살을 최고로 여기는 한국인에게 있어 등심과 삼겹살을 제외한 부위는 비선호 부위다. 따라서 판매량도 극히 적은 편. 식당이나 육류업체에서도 이 비선호 부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바로 '떡갈비'인 것이다.

요리연구가 미쉘 조 씨에 따르면, 떡갈비 중에서도 전라도의 한 지명인 '송정리'에서 유래한 '송정리 떡갈비'가 떡갈비의 제왕 격이라고. 이는 마치 부대찌게 하면 '의정부 부대찌게'를 최고로 치고, 떡볶이 하면 '신당동 떡볶이'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나 할까.

송정리 떡갈비는 다른 떡갈비에 비해 후해 보이는 게 특징이다. 갈비살을 곱게 다져 두툼하게 구워낸 뒤 달구어진 놋쇠판에 다시 한 번 구워내면 제대로 된 떡갈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떡갈비는 다른 고기와는 달리 육질이 연해 먹기에 편하다. 외국인들이 참석하는 파티상을 차려야 한다면, 오븐에 구워내면 더욱 좋다. 오븐을 이용할 때엔 중간 중간에 꺼내 양념장을 발라 주면서 굽는 것이 포인트다. 바비큐 파티상을 차릴 경우 바비큐 판 위에 쿠킹호일을 놓고 뜨겁게 달구어지면 떡갈비를 올려 구워내도록 한다. 이때 타지 않도록 구울 때 주의를 기울일 것.

조 씨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송정리 떡갈비를 상추에 얹어 마늘과 된장을 넣어 먹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조금 느끼하다면 전라도 전통 비빔밥을 함께 만들어 매콤하게 비벼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다음은 미쉘 조 씨가 소개하는 '송정리 떡갈비' 레시피다.

맛있는 재료

돼지고기 뒷다리살 2파운드
떡갈비 양념장
간장 3큰술, 다진 양파 2큰술, 다진 파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설탕 1큰술, 물엿 1작은술, 배 간 것 1큰술, 사과 간 것 1큰술, 매실즙 1큰술, 생강즙 약간, 소금 약간

만들기

1_돼지고기 뒷다리살은 기름 덩어리를 도려낸 다음 도마에 놓고 자근자근 곱게 다진다.
2_분량의 양파는 곱게 다져서 소금을 뿌린 후 살짝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하고 달구어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은 다음 식힌다. 양파는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아야 나중에 반죽할 때 물이 생기지 않는다.
3_분량의 파와 마늘은 곱게 다져 놓고 배와 사과는 잘 갈아 둔다. 믹싱 볼에 다진 파, 마늘, 배, 사과를 넣고 다시 참기름, 간장, 설탕, 물엿, 매실즙, 생강즙을 넣고 잘 섞는다.
4_다져 놓은 돼지고기에 다진 양파와 양념장을 넣고 끈기가 생길 때까지 치대면서 반죽한다.
5_100g씩 고기를 사각으로 만들어 가로 세로 칼집을 서너 군데 넣어 완성한 다음 냉장고에 넣어 하루 정도 숙성시킨다.
6_고기 굽는 바비큐 판이나 석쇠에 고기를 구워 완성한다. 이때에도 구우면서 양념장을 발라 주는 것이 포인트다.

〈도움말: 요리연구가 미쉘 조〉
쿠킹클래스 문의:
(562) 896-3090

나정 印한

LIFE TRAVEL

투어멘토 박평식이 추천하는

캘리포니아 여행이야기

아주투어 대표 박평식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여행가의 측면에서 나눠 보자면, 크게 6개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천사의 도시 로스엔젤레스, 야자수가 늘어선 산타모니카 해변, 다양한 테마파크가 있는 오렌지카운티 등이 속한 'LA & 인근 지역', 데스벨리·죠슈아 국립공원 모하비 자연보호구역이 속해 있는 신비의 땅 '데저트 지역', 미 전역을 통틀어 최고봉인 해발 1만4천5백 피트의 휘트니산과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최정상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진 '시에라 고원 지역',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감도는 명품 도시들이 즐비한 '센트럴 밸리 & 코스트 지역', 전미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해안선과 침엽수 숲, 깊은 호수가 있어 스포츠 마니아가 마음껏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노스코스트 & 샤스타 지역',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녹아있는 변화무쌍한 도심이자 세계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 베이 지역'이다.

데저트 지역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와의 경계지대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지역이다. 뜨거운 사막, 험준한 바위산, 풍화에 의해 침식된 계곡뿐만 아니라 그곳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로 가득하고 미서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포피 꽃 및 선인장들로 가득하다. 강우량이 극단적으로 적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심하다.

▶팜 스프링스 (Palm Springs)

미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타운인 팜스프링스는 캘리포니아 사막지역의 중심도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삶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세련된 매장과 스타일리쉬한 호텔, 캘리포니아 요리의 진수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다운타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온천지역 데저트 핫 스프링스(Desert Hot Springs), 남동쪽으론 쇼핑과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팜 데저트(Palm Desert)가 있다. 70여개의 퍼블릭 코스가 있고 프라이빗 코스까지 합치면 130여개가 넘기에 '골퍼들의 천국'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여름철엔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예약 전에 반드시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일정의 관광객들은 하신토 산(Mt. San Jacinto) 정상에서 스키를 즐기거나 엘파세오(El Paseo)의 상점가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보다 여유롭게 여행한다면 다운타운에서 출발하는 짚(Jeep)투어로 자연 그대로의 사막과 계곡을 답사하거나, 항공 박물관, 사막박물관 등을 방문하면 된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팜스프링스에서 동남쪽으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캘리포니아 최대의 호수인 솔튼 호수를 방문해보자. 오랜 기간 콜로라도 강물이 모여 이룬 호수가 사막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며 캠프 시설뿐 아니라 각종 휴게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공식 사이트 : www.giveintothedesert.com

▶조슈아트리 국립공원(Joshua Tree National Park)

황량한 사막 속 선인장과 기암이 이루는 풍경이 이채로운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은 팜 스프링스에서 약 40마일 동쪽에 있다. 난초의 일종인 조슈아트리가 바위산에 자생하고 있는 풍경이 매우 신비롭다. 또한 공원 내에는 9개의 캠프장이 있으며, 암벽 등반에 적합한 지대로 유명하다. 가족단위 여행객이라면 가볍게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말을 타고 각종 트레일 코스를 따라 둘러보는 것이 좋다.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을 돌아보는 드라이브 코스는 서쪽 입구에서 시작해 북쪽입구를 통해 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나오는 코스를 주로 이용하는데 약 150~170마일 정도의 거리이며 시간은 약 4~5시간 정도 소요된다.

북쪽 입구인 오아시스 비지터센터 부근에 가면 '트웬티나인 팜스(Twentynine Palms)'라는 재미난 이름의 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 이는 19세기 중반 서부 지역의 골드러시 시절에 서부로 이동하던 광부들이 사막에서 29그루의 야자나무가 솟아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한 데서 이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공식 사이트 : www.nps.gov/jotr

▶모하비(Mohave) **국립자연보호구역**

조슈아트리 국립공원과 데스밸리 국립공원 사이에 있는 모하비 국립자연보호구역은 풍부한 자연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진귀한 야생동물의 보고다. 이 지역 안에 있는 도로는 비포장 도로가 많으므로 드라이브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동차 점검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이 지역 안에는 아름답고 인상적인 자연 풍경이 많으며, 특히 사구와 화산분화로 형성된 절벽과 바위 돔, 들새 및 야생 동물과 같은 볼거리도 풍부하다.

공식 사이트 : www.nps.gov/moja/index.htm

사막지역의 주요 명소를 방문했다면 이번엔 붉은 지각단층과 수직의 주상절리가 파이처럼 겹쳐진 바위가 모여 있는, 붉은 절벽 레드락 캐년(Red Rock Canyon) 주립공원과 광산의 흔적, 은행, 건물 등 19세기의 마을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세레 고르도 고스트 타운(Cerro Gordo Ghost Town)을 방문해보자.

시에라 고원지역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인 캘리포니아에는 미국 본토에서 가장 높은 산인 휘트니산(14,500ft)과 미국에서 가장 낮은 해발을 기록한 데스밸리(해수면 이하 278ft)가 있다. 광활하고 높낮이가 극과 극을 이루는 캘리포니아를 기후에 따라 나눠보자면 보편적으로 5개 지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비교적 온난하고 쾌적한 기후를 자랑하는 북부와 중부에 걸쳐 펼쳐진 해안지역이 첫번째다. 강우량이 극단적으로 적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심한 남부내륙의 사막지역이 두번째다. 세번째는 동부를 남북으로 길게 잇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과 해안지역 사이에 위치한 계곡지대인데, 여름엔 기온이 높고 동절기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네번째 구릉지대는 계곡지대의 서쪽과 남쪽에 넓게 펼쳐져 있는데 계곡지대와 매우 흡사하지만 강수량이 조금 많다. 마지막으로 산악지대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과 그 북쪽 지역을 말하는데, 동절기에는 적설량이 매우 많다. 캘리포니아의 겨울을 만끽하고 싶다면 이 산악지대에 위치한 시에라 고원지대를 여행해 볼 것을 추천한다. 물론 사시사철 각각의 매력이 넘쳐날 만큼 경관이 뛰어난 곳이니 겨울에 가야 하는 곳이라 오해하지는 말자.

▶시에라 고원지역 이야기

미국 전역 최고봉인 휘트니산과 시에라 네바다(Sierra Nevada)산맥의 최정상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진 시에라 고원지역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 계절에 따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시에라 네바다 동쪽은 건조하지만 적설량이 풍부하고 '설질'(雪質·눈의 질)이 좋아서 겨울철에는 스키를 즐기려는 관광객 인파로 항상 붐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세코야 및 킹스 캐년 국립공원도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서 깊은 마을과 하이킹 트레일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깊은 호수 타호(Lake Tahoe)는 높이 6,200피트, 길이 22마일, 폭 12마일, 수심이 무려 1,600피트나 되는 산상호수로 호수 둘레를 도는 자동차도로가 165마일이나 되기에 다수의 여행전문잡지에서 매년 시행하는 '미국인이 꼽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설문 조사에서 항상 순위를 다툰다. 드라이브를 즐기다 잠시 차를 세우고 높이 솟은 산 사이로 드넓게 펼쳐진 호수, 그리고 쉼 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작은 모래사장을 바라보며 대자연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도 타호 호수에서만 즐길 수 있는 여유다. 단, 급커브 길이 많고 석양이 너무 강하기에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 반드시 선글라스를 챙겨야 한다.

전세계에서 최고의 스노우보더가 모이는 곳이자 산악자전거, 사이클링, 낚시 트레킹 등 다양한 '스포츠의 천국'이라 불리우는 매머드 마운틴(Mammoth mountain) 역시 시에라 고원지대에서 반드시 방문해봐야 할 곳이다.

〈자료 제공 : US 아주투어〉

〈다음호에 계속〉

타호 호수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BSBFJ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 입니다!
퇴거.파산.이혼.이민.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셔+킹슬리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쉽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주 L.A. 커텐

커텐 전문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WINDOW FASHION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빅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1.800.491.2440 922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해결

소장: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ㅣ 법정통역,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의한 피해 재산,부동산,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ㅣ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의자 천갈이

식당 노래방 스파 교회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714)222-9792 562)943-7101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골드핑거 양복점

직접재단 직접재봉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VERMONT AVE. #102 LA CA 90006

태양광 에너지 전문 Tree Soloar Inc

솔라 전기 컨설팅 회사
태양에너지 교육
James Han 310.991.2135
905 Diamond Ave, #9 South Pasadena, CA 91030

A-1 정비

오일 교환
76 오일사용
엔진 & 미션 전문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튠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0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 알로에 베라

먹고 바르기도하는 알로에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광고 디자인이 필요하세요?

신문광고/ 잡지광고/ 브로셔/ 온라인홍보물
213.814.1342
213.587.3498
kp.rodemh@gmail.com

유익종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종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만디 신한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r.,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Value Windows & Doors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통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스마트 월드

www.GoSmartworld.com
건강 용품 전문점!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특세일 가격 $3,900 +Tax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실리콘! 자동차 핸들 커버
$30 +Tax 강력한 음이온+원적외선 발생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로데오 갤러리아 833 S.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둥굴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의료보험 없는 한인들에 희소식 크리스천헬스케어미니스트리

30년 전통,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혜택 제공

나의 작은 헌금이 남을 도울 뿐 아니라 자신까지 돕는다면 얼마나 이상적일까? 크리스천헬스케어미니스트리는 비영리 의료사역 단체로서 참여자들이 서로의 의료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일종의 의료 상조 시스템이다. 회원들이 멤버십에 따라 회비를 이 단체로 보내면 이 회비가 모여 의료비가 필요한 회원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반대로 그 회원이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 때가 되면 그에게 도움이 돌아온다.

골드회원은 매달 155불, 실버회원은 90불, 브론즈회원은 50불을 낸다. 가족 중 한 명이 추가될 시 비용이 약간 더 붙는다. 보통 최대 12만5천불까지 지원이 되며 회원이 추가 회비를 내고 브라더스 키퍼에 가입한 경우 1백만불까지도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보험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 그러나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다. 한국어 사역부 대표 이원준 전도사에 따르면, 첫째 기독교 사역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때, 또 혜택을 받고자 할 때 담임목회자가 그의 신앙을 보증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

둘째, 이렇게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사기 및 부당 지출의 사례가 없었다. 지금까지 30년간 10만 명, 10억 불을 지출하며 성공적으로 사역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셋째, 기독교 비영리 기구이다 보니 병원과 가격을 협상함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 보통 보험사가 병원이 기본적으로 할인해 주는 35% 정도의 비용을 낮춘다면 이 단체는 최대 50% 이상까지 비용을 낮추어 조정해 준다.

넷째, 신청을 한 그날부터 적용이 되며 자신이 원하는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신촌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안양샘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고대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경북대학병원, 광주기독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등 40여곳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섯째, 보험에 비해 비용은 최대 5분의 1 정도로 저렴하지만 수혜 혜택은 비슷하며 개인부담금은 낮다. 한 번 혜택을 받았다고 회비가 높아지지도 않는다.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출산이나 분만 시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이 외에도 가장 큰 혜택은 회원들의 병세와 상황, 필요한 의료비용 등에 대한 뉴스레터가 발행되고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기도해 주며 고통을 나눈다는 점이다.

이런 의료 상조 프로그램은 최근 USA투데이, CNN, 폭스뉴스 등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전국민 보험 가입 의무 조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벌금 때문이다. 크리스천헬스케어미니스트리의 이 사역은 보험은 아니지만 이에 가입할 시 벌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 사역부 대표 이원준 전도사

최근 이 단체에서는 타민족을 위한 사역을 최초로 시작하며 한국어 사역부를 열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인 18세-64세 중 평균 21.3%가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한인은 무려 72%가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도사는 "의료 혜택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LA 지부에서는 한인들이 편리하게 서류를 작성,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www.chministries.org(한국어 www.chman.org) 621 S. Virgil Ave. #460 Los Angeles, CA 90005 전화: 213-986-8119(한인지부) 이메일: info@chman.org

한 번에 한 상인을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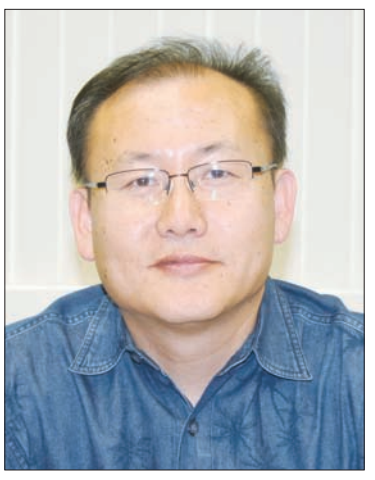
소규모 자영업자 돕는 GBFI 쟌 홍 대표

유대인의 막강한 커뮤니티 경제 장악력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자금 융통력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년 3개월 전 쟌 홍 대표가 '굿뉴스비지니스펀드(GBFI)'를 설립할 때 그는 한인들이 저렴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자금을 융통하고 또 나아가 남까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GBFI는 쉽게 말하면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Private Funding 회사다. 보통 1만불을 길게는 3일, 짧게는 당일 대출해 주고 20주에 걸쳐서 갚도록 한다. 물론 이런 일을 하는 융자회사는 많다. 그러나 GBFI에겐 이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

홍 대표는 미국 MCA회사에서 최고를 달리는 세일즈맨 출신이다. 그러나 이들의 고금리, 까다로운 조건 등이 한인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것을 알게 됐다. 한인들을 도울 방법을 찾던 그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펀딩을 찾아보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어 기도하던 중 "내가 직접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됐다. GBFI는 타 MCA회사들이 자영업자들이 얻는 크레딧카드 결제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취하는 방식을 갖고 있던 것에 반해 크레딧카드 결제 수익이 없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자도 타 융자회사가 1만불당 3800불을 받을 때, 2000불로 낮추었다.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이자를 그대로 물어야 하던 것에서 조기상환을 하면 이자를 절약해 주기로 했다. 전화 한 통이면 당일이라도 직접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대출을 해 주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줄였다. 기본 매상은 있지만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푼돈으로 매주 갚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부담이 없다.

홍 대표는 GBFI가 한인 경제에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일단은 쉽고 편리하게 융자를 받는 것이 기본이다. 둘째로 한인 자영업자들이 소규모 대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Private Funding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면 GBFI를 이용할 시 이율이 낮아 세이빙이 된다. 홍 대표는 "우리 회사의 고객들은 만족도가 100%라고 자부한다. 자금회수율이 100%에 달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한번에 한 상인을 살린다"라는 고객 위주의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다.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얻어진 수익들이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홍병식 박사가 투자자 및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 아래 GBFI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매달 1.5%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쟌 홍 대표

홍 대표는 "회사가 설립된 후 1년 3개월간 300개 이상의 펀딩을 해 주며 한인 자영업자들을 도와 왔다. 현재 19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가 한인 상인들을 살릴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보람과 경제적 유익을 준다는 점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한인 상인들이 힘들 때 도움을 받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아 일어선 후에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GBFI는 상인들에게 매주마다 유익한 정보를 발송해 주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돕고 있다. 이 불경기에 가치있는 일을 하며 또한 안전하고 투명한 고소득을 원하는 분들은 투자로 참여하는 것도 좋다.

한편, 홍 대표는 현재 은혜한인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며 영어와 스패니시 통역을 맡고 있기도 하다.

문의) 323-334-6533 www.goodnewsbusinessfund.com 1201 S. Beach Bl. #205 La Habra CA 90631, 8282don@gmail.com

태양광 시대 열렸다 … 컨설턴트로 제2의 인생을

제임스 한 대표

요즘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에너지원은 단연 태양광이다. 태양의 빛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이 발전 방식은 친환경적이며 반영구적이다. 현재 효율성은 10% 내외 정도지만 2002년 이래 매년 50%씩 성장하는 블루오션 산업이며 미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 호주 등에선 국가 차원에서 장려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이 뜨는 곳, 즉 세계 어느 주거지역에서라도 기존의 발전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태양광이 강한 곳은 이런 발전 방식이 아주 적합하며 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 발전 시스템을 지붕에 설치하면 태양광을 저장하는 패널을 통해 전력이 생산되므로 전력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자연재해로 인해 전력당국에서 전력이 끊겼을 때에도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신생산업이다 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는 많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아놀드 슈워제너거 주지사 시절부터 10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트리솔라(Tree Solar)는 소위, 태양광 에너지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열리는 4주 과정의 그린 테크놀로지 트레이닝 클래스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개요부터 기초를 가르쳐 준다. 이를 마칠 시, 솔라 컨설턴트(Solar Consultant) 자격증이 주어지며 주택이나 상업 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설치될 때 상담을 할 수 있다. 현재,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턴트의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컨설턴트의 필요성도 절대적이다. 컨설턴트는 수요도 높지만 무엇보다 전체 시공 금액에서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직업이다.

이 과정을 마친 이들에게는 보다 더 상급의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추가 과정도 트리솔라에서는 제공한다. 현재까지 트리솔라에서는 4기째 수강생을 모집했다. 제임스 한 대표는 "주로 건축, 건설 분야의 전문인들이 태양광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우주공학을 전공하고 관련 업종에서 일하면서 우주항공선에 사용되는 솔라 패널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다 트리솔라를 설립했다. 그는 "불경기에 많은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새롭게 각광받는 산업에 도전해 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강의는 905 Diamond Ave, #9 South Pasadena, CA91030에서 진행되며 수강료는 5백불이다.

문의) 310-991-2135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

2012년 서부지역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1위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딜러에서는 경험할수조차 없는 다양한 혜택과 감동,
오늘 푸엔테힐스에서 누리십시오.

골프장 무료 라운딩 쿠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행사기간:2012년 10월1일~31일)

평생 무료 세차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에 한합니다.

+ TAX(STK.050068)

$596 NEW

확인해 보세요!

- ☐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한지 1년이 되셨습니까?
- ☐ 미국 현역 군인 이십니까? ☐ 현대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 ☐ 다른 워런티를 사실겁니까? ☐ 등록비를 따로 내십니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현재 다른 딜러쉽의 광고 가격은 확인해 보십시요.
저희 푸엔테힐스현대에서는 광고 그대로 드립니다.

2012 EQUUS ULTIMATE

8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감을 느껴보세요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66,650 / Residual: $30,659 / T.D.O: $5,399
Plus Comp Rebate /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2013 SONATA GLS

ERA 기중 대형차급 실내공감 2011년 정부 안전기준 별5개 획득

$121 + TAX(STK.558019)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20,010 Residual: $12,326
T.D.O: $3,999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2012 GENESIS 3.8L

대형 세단의 편안함을 실속있게 즐기세요.

$246 + TAX(STK.203934)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35,210 Residual: $17,253
T.D.O: $3,999 / Plus Comp Rebate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6
Sales Manager 저스틴 길 626.513.4580
고객상담 제니 김 626.513.468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u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